

기획인 대중투쟁과 광역선거

5월 투쟁 성과 제한적 참여로 대중투쟁 고양시켜야

정치세력화 의미 축소 대중적 선전의 장으로 활용

5·6월 투쟁과 광역의화선거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2)

○ 광역의회 선거가 눈앞에 지금 지난 5월 한달동안 들불...
○ 처럼 타올랐던 민중들의 투쟁은 재등기를 하고 있다. 고...
○ 양면 투쟁열기를 전철시키려는 의도가 정권에 의해 시도...
○ 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미리 고민하는...
○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독재권력의 정세전환 기 도와 민족민주운동의 주제 역량

91년 5월 투쟁은 87년 6월항쟁과 많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87년과 91년의 시기적 차이만큼이나 87년 6월항쟁과 91년 5월투쟁의 질적 차이는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그 질적 차이는 양 투쟁을 주도했던 계층의 차이를 첫째로 하면서 매우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87년 6월항쟁 이후와 5월 투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금을 비교할때 8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는 5월투쟁의 고양과 투쟁주체의 재편과정에서 노경권이 국민전환을 위해 피하는 광역의회 선거와는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정치적 변화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을 통해 억제하고자 하는 정치권력의 의도가 똑같이 관찰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중투쟁의 고양과 발전과정에서 지배권력이 피하는 정세변화의 기도를 민족민주운동의 힘에 의해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회의적이다. 다시말해 지금의 대중운동의 발전 수준이 대단히 컸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결코 정세 변화의 기본요인이 민족민주운동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제역량의 한계를 분명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중운동의 성장과 주제역량의 한계라는 일견 모순된 구조는 지금 남한 사회의 민주발전을 둘러싼 제 경계에 대한 차이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광역의회 국면, 어떻게 들파할 것인가' 쟁점의 점검

5월투쟁에 뒤이은 광역의회 선거

국면을 바라보는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입장은 크게 보면, 선거의 전면 거부와 선거 국면에 대한 제한적 참여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5월 투쟁 이전에 존재했던 선거의 적극적 참여입장은 일단 논외로 한다. 논외로 한다는 것이 곧, 의권의 독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의회 선거를 바라보는 운동 진영의 대립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쟁점에 대한 접근과 평가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선거의 전면 거부와 논리적 근거는 일차적으로 5월투쟁에서 나타난 대중투쟁의 역량이 부족하다. 노경권이 피하는 광역의회 선거국면으로 전환에 대해 민족민주운동은 그 기반성을 대중적으로 폭로하면서 대중투쟁의 고양에 기초하여 노경권 퇴진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의회 선거로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관심이 돌아설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된다면 대중투쟁의 방향을 선거라는 합법적 공간으로 이전시켜 노경권의 의도에 말려드라는 것이다.

한편 광역의회 선거국면에 대한 제한적 참여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민족민주운동의 주제역량의 발전정도에 정세를 주도적으로 전환시키는 본질적 요소가 되지 못한 다는 데에 주목한다. 즉, 5월투쟁의 전개과정에서 6월항쟁과 달리 조직

광역의회 선거투쟁에서 각 영역별 투쟁단위 설정 의 의미

현재 우리 운동의 수준을 명백히 인식한다면 위 문제는 좀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87년 6월항쟁의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성과로 가시화되었던 89년 당시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결성을 둘러싼

91년 5월투쟁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는 조직역량의 확대와 그를 대중투쟁에 결합하여 궁극적인 권력대체의 실현을 위한 매개고리는 아직도 부재하고 이것은 다시말해 민족민주운동의 투쟁적, 조직적 구성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의회 선거 투쟁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이전은 민족민주운동의 역량을 점검하는 주요한 범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5월투쟁 이전과 이후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하고 있는 측면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5월투쟁 이전에 고려되었던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후보자 대외나, 선거국면에서 독립된 정치세력으로 갖는 의미는 크게 축소되어야 한다. 민족민주운동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방의회 선거를 통하여 지배권력이 피하는 요소를 폭로·선전해 내면서

도시 대중투쟁의 관점에 서야 한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면서, 대중투쟁과 선거공간에 민족민주운동이 참여하면서 전개할 수 있는 투쟁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선택의 문제에 구분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곧 두번째의 문제의식에서 구제화 된다.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이 갖는 연관과 차이

5월투쟁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광역의회 선거국면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중투쟁의 내용은 무엇인가?

비록 지배권력이 국민전환을 노려 이루어진 선거라 할지라도 민족민주운동은 그 사실을 객관화시켜야 한다. 객관화시킨다는 의미는 우리의 주제역량이 지금의 상황에서 정세변화를 주도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한다. 운동역량이 지배권력의 정세전환의 음모를 인식한다는 차원에서 음모를 폭로 분쇄하여 운동이 요구하는 주변정세를 이룩해 낼 수 있다면 선거국면에서 투쟁의 문제는 곧 권력의 성격과 경로의 문제로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동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남한 사회에서 선거가 갖는 역동성에 주목하면서

후보진출의 문제는 다음의 몇가지 전제가 이루어진다면 선거투쟁에서 단연히 채택될 전망이다. 첫째, 이미 5월투쟁 이전에 조직적으로 후보의 문제가 결정됐는가와 실현되었던 양되었던 간에 연합공천의 전제를 갖고 있는가의 문제다. 조직적인 결정의 의미에서도 그 지역의 제 민주단체의 합일된 조직적 결의가 수반되었는가의 문제를 당연히 포함시킨다.

둘째, 예정된 운동의 후보가 5월투쟁을 거치면서 얼마만큼 결합되었는가의 문제다. 기본적으로 일상적 선거의 공간에서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한 선거양식은 전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 후보진출과 대중투쟁이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후보는 민족민주운동의 후보로서 진정한 후보진출의 의미를 실현시킬 수 있다.

한편, 지역을 단위로 이루어질 투쟁의 내용은 후보문제가 배제된 지역은 민자당 낙선과 민주후보의 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각 지역별 상황이 전국적 단위로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지역별 사안의 부정을 전연적으로 결합시켜 민자당 후보 낙선 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해야 한다. 군산의 경우 TID반대투쟁의 내용을 지난 기초의회 선거에 결합하면서 승리를 쟁취해 왔다.

문제는 민족민주운동의 조직적, 투쟁적 구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하여 선거투쟁의 내용을 확보할 것인가이다. 앞으로 남은 5월투쟁과 6월투쟁에서 위력적인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두가지 문제는 풀려질 것이다. 그 역순이 되었을 때 광역의회 선거에 임하는 민족민주운동은 대단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김민식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연구원)



◇지난 25일 퇴계로4가에서 열린 '폭력살인 민생파탄 노경권퇴진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 모습.

대중투쟁 외면 - 합법공간 확보하려는 개량적 경향 배제

지역별 연합공천 의미 인정하며 민주연합 단초 확보 노력 필요

대중의 힘에 의해 주도됐음을 분명히 인식하지만, 그것이 곧 노경권 퇴진투쟁의 내용을 담은 전면적인 대중투쟁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권의 부패와 폭력성에 대한 규탄의 투쟁열기가 곧 전진된 것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대안이다. 그런데 현재 5월투쟁을 이끈 민족민주운동의 수준은 그 조직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권력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역량의 평가에 기초하여 앞으로 다가가 광역의회 선거는 제한적 참여 즉, 기존에 준비되어 왔던 연합공천이나 독자 후보의 내용이 확보된 지역의 대중투쟁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대중투쟁, 그리고 전국적 단위의 정치투쟁을 일단 각각의 영역별로 구분한다.

이러한 정세인식의 차이는 현재 발전한 대중운동의 성장을 기본축으로 하여 어떻게 지배권력이 피하는 양적 지배구도 관찰을 위한 위기국면의 돌파, 즉 광역의회 선거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예고되고 있는 권력 재편기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충분한 자기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2안을 주장했던 상당수의 인사는 현재 제도 야당에 포진하여 있고, 3안을 주장했던 인사는 감옥에, 그리고 대상화되었던 원로들은 각 투쟁의 현장에서 대중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운동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운동의 이러한 개량적 현실에서 지배권력이 피하는 광역의회 선거국면으로의 방향 전환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민족민주운동의 구체적인 광역의회 선거 투쟁을 위해 다음의 범주 구분이 필요하다.

첫째, 5월투쟁의 파고를 높여내어 선거국면의 과정에서 더욱 확대된 대중투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국적 단위의 투쟁과 지역운동의 확대와 민주연합의 기초단위를 확보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범주구분의 구분은 현재 민족민주운동이 갖는 조직역량을 확대화시키는 것을 한 측면으로 하고, 5월투쟁으로 이룩된 성과를 선거국면에서 대중투쟁의 고양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필연적이다. 이같은 투쟁범주의 구분이 갖는 의미는 선거국면에서의 투쟁 역시 반

내적으로는 선거가 주는 합법주의적 경향과의 투쟁이다. 그리고 91년 5월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립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현재 명시하고 선거국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가두 대중집회를 계속 조직해 내야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선거를 자기 운동의 조건으로 갖고 있는 지역운동에서는 그동안 확보된 연합공천의 의미를 적극 살피면서 반민자당 전진 시기와 선거국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가두 대중집회를 계속 조직해 내야 하는 것이다.

2안을 주장했던 상당수의 인사는 현재 제도 야당에 포진하여 있고, 3안을 주장했던 인사는 감옥에, 그리고 대상화되었던 원로들은 각 투쟁의 현장에서 대중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운동의 현실이다.

지역별 연합공천의 의미를 인정하며 민주연합 단초 확보 노력 필요

지역별 연합공천의 의미를 인정하며 민주연합 단초 확보 노력 필요

지역별 연합공천의 의미를 인정하며 민주연합 단초 확보 노력 필요

1991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각대학원 학생모집

불교대학원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정보산업대학원	지역개발대학원 (경주캠퍼스)
1.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사과정 ① 불교학 과: 한국불교, 중국불교, 인도불교, 교학 ② 불교사 과: 한국불교사, 중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교예술사 ③ 불교사회학과: 사회불교, 포교학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1. 6. 4(화)~6. 13(목) 3. 전형일시 및 장소: ① 석사 및 연구과정: 1991. 6. 21(금) 13:00 본대학원 ② 관리사과정: 1991. 6. 22(토) 14:00 본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학위과정: 필기시험(영어, 전공) 및 면접 ② 연구과정, 관리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징 ① 조계종 제직승려는 소정의 장학금 지급 ② 관리사 과정 중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증 수여 ③ 석사과정 사회복지전공 졸업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전화 267-8131~9(교)3444~5 직통 269-8359	1.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사과정 ① 행정학 과: 일반행정, 공공정책, 지역개발, 지방행정, 언론홍보 ② 안보행정학과: 외교국방, 방위산업, 군사전략, 북한학 ③ 안전관리학과: 안전관리 ④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 교도행정, 소방행정, 사범행정 ⑤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 ⑥ 노무행정학과: 노무행정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1. 6. 10(월)~6. 18(화) 본대학원 3. 전형일시 및 장소: 1991. 6. 22(토) 14:00 본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전공(행정학), 서류전형, 면접 ② 연구, 관리사과정: 서류전형, 면접 5. 특징 ① 공무원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수업료30%) 지급 ② 유동장학금, 출장장학금, 동문장학금 등 장학금이 있음. ③ 사회복지전공 졸업자는 1급 복지사 자격 취득. 전화 267-8131~9 (교)2263 직통 267-8574	1.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사과정 ① 경영학 과: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② 회계학 과: 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③ 무역학 과: 무역이론, 무역관리, 국제경제 ④ 경제학 과: 관리경제, 국제경제 ⑤ 전지계산학과: 시스템사설레이전, 전자정보처리 ⑥ 노사관리학과: 노사관리 ⑦ 부동산학과: 부동산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1. 6. 3(월)~6. 12(수) 3. 전형일시 및 장소: 1991. 6. 15(토) 14:00 본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영어, 논문, 면접 ② 연구과정, 관리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징 ① 해외 자매대학 등의 연수참가 기회 있음. ② 전자계산학과 및 생산관리전공은 본교의 컴퓨터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③ 공무원, 교직원, 군인, 공인회계사등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전화 267-8131~9 (교)2273 직통 267-8140	1.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사과정 ① 교육학 과: 교육행정, 교육경영 ② 교과교육학과: 국어, 지리, 역사, 수학, 윤리, 철학, 미술훈, 체육, 영아, 놀이, 화화, 생동, 가정, 청소년 상담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1. 5. 29(수)~6. 7(금) 17:00 마감 3. 전형일시 및 장소: 1991. 6. 15(토) 13:00 본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필기시험(전공, 교육학) 및 면접 ② 연구과정: 필기시험(교양) 및 면접 5. 특징 ① 무대전형: 대학의 조교수 이상(전문대학이 상), 중등 학적 교사 및 교감, 교장, 교육행정기관의 장학사, 연구사등 ② 장학: 공무원, 교사, 사립 교직원 및 조교 중 제직승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267-8131~9 (교)2283 직통 279-8052	1.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사과정 ① 정보통신학과: 정보관리, 전자계산 ②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 출판편집 ③ 정보통신학과: 정보통신 ④ 산업개발학과: 산업개발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1. 6. 10(월)~6. 19(수) 17:00 3. 전형일시 및 장소: 1991. 6. 22(토) 14:00 본대학원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필기시험(영어), 서류전형, 면접 ② 연구과정, 관리사과정: 서류전형, 면접 5. 특징 ① 원적 현업에 대하여 특별수당장학금 지급 함. ② 공무원, 군인, 국산업체 중견 간부원에 대하여 각종 장학금 지급함. ③ 석사시 출장장학, 유동장학 등 각종 장학금 지급함. ④ 학과 지우인은 출신 대학 전공학과에 관계 없음. 전화 267-8131~9 (교)3292 직통 277-6511	1. 모집과정 및 학과 ① 모집과정: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사과정 ② 모집 학 과: 개발행정학과 ※ 전공: 개발행정, 지방자치, 지역경제개발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1. 6. 10(월)~6. 18(화) 17:00 까지 3. 전형일시 및 장소: 1991. 6. 22(토) 14:00 본대학원(경주캠퍼스 진흥관) 4.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논문, 서류전형 및 면접 ② 연구과정, 관리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징 ① 기입제, 정부부서 실무경험자 전형에서 우대. ② 공무원 전임제 졸업시까지 장학금(수업료 30%) 지급. ③ 유동장학, 출장장학 등 각종 장학금 있음. 주소: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번지 전화: (0561)2-0131~6 (교환)263 직통 (0561)41-4131

기타 자세한 것은 각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통치기반인 외세도 각인해야 할 때

대택회의 '시국대토론회' 발췌

“공인통치완전종식과 민주정 부수립을 위한 시국대토론회”가 지난 23일 명동성당에서 있었다.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의미깊은 시국대토론회의 내용을 발췌해 보았다.

(편집자)

동자와 민중들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지금 현정권은 노계분대사파, 양심수선별석방, 광역의회선거국면으로의 전환을 통해 야당을 제도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한편, 박정수위원장의 시신발취, 강제부검, 전노협 총파업 지도부 수배, 분신 배후 수사등 이중적인 탄압정책을 쓰고 있다.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은 전국민들과 함께 투쟁의 기선을 더 높여야 하는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분명히 한다. 첫째, 백골단, 안기부등의 폭압기구 해체와 민주생존보장이 없는 기반적인 내각각변과 광역의회선거를 단호히 거부한다. 둘째, 노동자를 비롯한 기

중 민중들의 생존권과 정치사상의 자유는 야당이 책임질 수 없다. 이는 민중의 단결로써만 가능하다. 셋째, 박정수위원장 전상규명투쟁을 합쳐야 할 것이다.

▲김동식(제5기 전대협위원장)

=공인통치라는 야당의 정의를 이 용하고, 부정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기반이 없이 집권한 노정권 장기집권을 위해서 행하는 정치행태이다. 강경대군의 죽음은 여기서 비롯됐다. 우리 청년학도는 92-93년의 정치적 격돌기를 앞두고 올해의 투쟁은 우리의 대의를 관건화 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천명한다. 국민들이 싸우고 있는 데 앞세우는 전국의 백만청년학도가 있다. 또한 우리는 노대우에 반대하는 자

는 야당까지 포함하여 싸우겠다. 야당은 국민들의 투쟁을 담당할 수 없다. 야당은 노대우에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싸워야 할 것이다.

▲이천재(민자통 공동위원장)

=국민의 10%이하의 지지를 받는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회과학적 지식을 민자당이 거스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공인통치를 하는 데도 원인이 있지만, 강력한 의지의 뒷받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로 어떤 이론을 넘어서 투쟁한 역사적인 산경험이다. 우리민중이 '민주' '자유' '니를 외치고 독재정권에 항거할 때'이다. 미국은 그들의 의지에 담보되지 않는 한 생체 실험실의 모토 모드의 운명처럼 우리민중을 이용하고 우용해왔다. 지금 우리가 노대우정권퇴진을 달고,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총체적인 단결을 위한 결단을 내렸어도, 이와 함께 우리는 민족자주를 함께 생각해야한다. 자주적 역량이 없는 민족은 잘못된 민주주의에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적인 결론이다.

그리고, 우리가 야당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우리의 역량을 따라서 그 노선을 전지해 나가면된다. 그럼에도 야당이 함께하길, 안하길 그것은 차우의 문제이다.

▲배미희(부산 비상시국대토론회의 공동대표)

=노대우정권퇴진은 이제 국민적 상의이다.

부산비상시국대토론회는 제도권아당을 포함하여 '적'이 아니면 모두 '우리편'이라는 입장으로 싸우고 있다. 지금은 야당에 대해 구타를 할 때가 아니라 야권을 건인하여 힘을 합칠 때이다. 그리고 제5차 부산시국대토론회는 박정수위원장 옥중살인규탄을 주안점으로 싸울 예정이다.

(기록·정리=양승희 기자)

전대협의 역사와 전총련의 전망

통일열린 47년, 남북하나되기 3년전. 조국과 민중을 사랑하고, 불의에 용감한 청년학생들은 자주·민주·통일을 향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자로 자리해왔다.

4·19혁명의 역사에서 그러하였고, 88년 조국통일의 기치를 드높였던 남북청년학생회담의 성과 또한



◇ 지난해 광주에서 개최된 제4기 전대협 출범식.

피와 땀이 땀 백만학도의 사랑

청년학생의 선도적인 투쟁이 남한 사회변혁에 얼마나 지대한 발전을 가져왔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듯 남한청년학생운동이 큰 위치를 차지하는 청년학생은 자신들의 조직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를 스승과 간직하고 있다.

"구국의 강령대오" 그 애정에서 알수있듯이 전대협은 구국운동에 있어 그 어떤 조직보다 굳은 결속력과 대중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전대협을 지키기 위한 많은 열사들의 피가 배어있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전대협의 5월18일은 87년 6월항쟁때 대중들의 폭발적투쟁을 학생회가 주도하여 이끌어낸 고된과 노력의 결실이었다.

세계 6월투쟁시 학생운동은 광범위하고 자발적인 대중들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도할 통일열린 청년학생대표자협의회가 고립적인 투쟁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을 전일적 지도체제로 묶어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명목으로 이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백만학도의 단결의 구심점인 전대협의 건설이 모호되고 동시에 전국적 대중투쟁의 건설도 단절된 당시 이현열총장 장제의 절조문제와 관련된 연대에도 못미친 전국 각 총학생회장 연석회의에서 제기, 준비되기 시작했다.

이후 많은 실천적 논의속에서 협의체수준의 전국조직건설을 합의했으며 드디어 8월19일 총대협에서 제1기 전대협 출범을 만방에 선포하였다.

이렇게 걸음을 시작한 전대협은 89년 평양청년학생축전, 90년 범민족대회등 남한 변혁운동사에 획을 그을만한 역사적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역할을 확고히 해왔으며, 전국의 백만학도들이 전대협을 '자신이 주인'이라는 자주적의식과 참여로 끈끈히 건설되어 온 것이다.

지난해 5월18일 광주출범식에 참석하러다 철로에 떨어져 숨진 신장호일사와같은 '전대협시수'의 높은 결과가 있기에 강령같은 대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백만학도의 주인 의식과 참여한 전대협이 정부에서 주장하듯 자민통이라는 이념체제의 시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백만학도 스스로의 힘과 구국의 정의감에 의해 움직여나간다는 것을 명목으로 밝힌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백만학도의 단결의 구심점으로 자리한 전대협은 이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조직적 지향으로 전총련건설을 선포했다.

지난 시기 동의대항쟁, 새총대의 학원자주투쟁, 사법대학우들의 교육민주화투쟁에서 보여지듯 학

원자주화운동과 구국운동에 있어 전국적인 연대투쟁과 통일적 대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전대협의 정치투쟁을 기본으로 한 협의와 계획·일정조정등의 협의 수준을 넘어 각대학·지구지역의 투쟁을 내용적으로 조직·지도할 수 있는 전국적 학생운동의 지도구심체의 필요성이 절박한 현실이다.

전총련이 건설되어지면 첫째, 현재 전대협이 소속학교간의 공통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위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반해 전총련은 공통된 사업에도 일부의 특수한 이해에 대해서도 전체가 책임을 지는 한 단계 높은 연대와 통일수준을 갖출수 있다. 둘째, 조직적 결합수준에서 상·하부의 협의적 수준은 낮은 지도의 내용으로 발전하며 이는 사상과 조직의 핵심으로 중앙이 힘있게 자리하는 것이며 전일적인 집행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전총련건설의 노력이 이뤄지면서 서총련에도 부산·울산 총학생회협의회가 부흥운동으로, 남대협이 남총련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우리학교가 소속된 서총련남부지구로 서남총련으로 연합체제로 구축되고 있다.

이제 구국운동의 강령대로서의 전대협은 백만학도의 힘과 지혜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사회부)

양심선언한 현역군인을 만나

본교출신 이동익(전자계산 88) 일병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군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 군내부의 비민주적 요소가 하나라도 적절된다면 저는 애국군인의 마음을 대변한 양심선언의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부대를 나와 양심선언을 했지만 전하에 도청장치가 되어있어 부모님께 마음놓고 전화한번 걸지 못한 상태에서 이군은 연일 강소를 바꾸면서 거처를 마련해아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학원사찰, 프락치감호, 시위전력자들의 녹화사업, 군내부 감시체계 등을 통해 군인들은 자주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을 억압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라고 말하며 군내내 의문감의 전상규명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하며

이제까지 수차에 걸쳐 군의 민주화를 외치며 산화해 간 애국군인과 지금도 군법제도에 회부돼 고도소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반공교육을 받고있는 우리의 친구·형제들을 생각해 볼때 군의 실상에 대한 광범위한 폭로 작업이 이땅에서는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한다.

“전정 군대가 국가의 자주권 수호와 민족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위해서 먼저 군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한 내부적 각성과 우리 애국군인이 민주적 군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군내상황은 철저적 외부생활과 결별된 채 유령화 바깥소식은 전혀 알수없다는것을 지난 강경대열사 사망과 관련, 이를 부대에서 접할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대택회의 상형실에서 만나보았

부대를 나와 양심선언을 했지만 전하에 도청장치가 되어있어 부모님께 마음놓고 전화한번 걸지 못한 상태에서 이군은 연일 강소를 바꾸면서 거처를 마련해아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학원사찰, 프락치감호, 시위전력자들의 녹화사업, 군내부 감시체계 등을 통해 군인들은 자주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을 억압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라고 말하며 군내내 의문감의 전상규명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하며

“민주화운동에 보탬되고자”

“지금 심정은 기존의 군내생활속에서 수없이 잃어오면서 가졌던 갈등에서 해방된 느낌입니다. 9개월간의 짧은 군내생활을 통해서나 본 군의 모순된 모습을 실상자체가 평창히 애국해 있습니다”

이군은 군입대전까지 동아리 탐사철학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지난해 휴학을 하며 군입대를 연기해오다 군 본연의 일부를 생각, 지난해 9월13일 군에 입대했다.

“정치적 편향, 시대착오적 이념 학습 및 일체의 폐습을 고스란히 간직해 비민주적인 인건유원을 자행하는 군의 실상을 폭로해 군의 민주적 변화를 열망하는 애국군인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 이념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며 그간의 경위를 밝혔다.

폐쇄성은 군인을 포함한 민중의 기본적인 알권리마저도 박탈하고 중추와 복중만을 강요합니다. 더우기 현시기 민주화운동을 폭도 운운하며 외부순색의 배후조직 책동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군은 부대인근 주변마을에 마련해 놓은 비밀연락망을 통해 어느정도 현 민중들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전반적인 군내대상황은 얼마나 군이 폐쇄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현정권은 군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채 우리의 아들·친구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위한 전정·백골단으로 자출해 그들의 존재기반인 방파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말입니다”라며 분노의 감정을

분분적인 인권유린의 운상인 기무사의 즉각 해제가 이뤄져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거의 만장일치 고갈들의 황포 신체적고통, 이와 더불어 나타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탈영 등의 실상은 갈수록 늘어 국민들로부터 갚을 수 없는 반군감정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전민중적 민주주의를 이룩하려는 현시기 민주화운동에 애국군인 또한 과감히 떨쳐 일어나 민중과 함께 민주화운동에 동참해야할 것을 약속하고 애국군인의 일념은 노정권퇴진 투쟁의 승리를 더욱 앞당겨 민주적 해방체상을 건설하는 일이 마지막 투쟁이며 대총련을 맞이한 동야 청년학도의 더욱 고강투쟁을 당부하며 말을 맺는다.

(조인환 기자)

동막로

“오늘 또 학생이 죽었네요. 그런데 분노하지 않을수 있어요.”

“아 내가 죽었나. 그리고 그애가 죽은 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야?”

지난 25일 “공인통치 종식과 노대우정권 퇴진을 위한 3차 국민대회”는 시국안정책의 하나라

국민대회 중 을지병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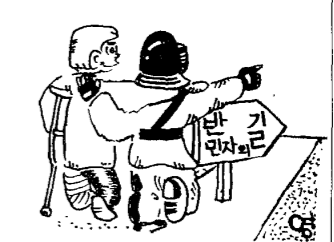
비속에서도 국민대회가 강행되자 경찰은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하며 시위대 참가·연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학생대수가 늘, 최루탄과정에 중·경상을 입어 을지병원 중·중환자실 응급실은 시위도중 다진 학생·전경을 치료하느라 바빠 응급실이었다.

10시 을지병원 응급실.

노퇴진은 학생·전경 모두를 위한 투쟁

“긴박한 상황에서 학생·전경이 어디있어요. 모두가 아니라 젊은이들인데. 전경이 다쳤을 때도 서로 부추키며 응급실에 들어갔을 거예요.”

국민대회가 참가해 부상학생을 부추키며 병원에 왔다는 작가 윤정호씨의 말에서 백골단 전경이 우리의 적이 아닌 형이고 친구인



것을 우리 스스로 잊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났다.

을지병원 응급실에서 서로 시선을 피하는 학생·전경간의 서먹한 분위기를 보며 지난날 26일 강경대군 치사사건이후 집회에서 가두에서 외쳤던 ‘백골단 해체, 노대우 퇴진’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시민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젊은이를 둔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친구이자 형인 전경 모두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병민 기자)

대학원 학생모집

1991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과정 및 학과
 -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 2. 모집인원: 석사과정 ○○명, 박사과정 ○○명
 - 3. 시험과목
 - 가. 석사학위과정: 가) 영어 나) 전공 다) 구술고사
 - 나. 박사학위과정: 가) 영어 나) 전공(공통, 세부전공) 다) 제2외국어(인철, 국문, 철학, 국민윤리, 한의학과 한학) 라) 구술고사
 - 4. 시험일정
 - 가. 원서접수: '91. 5. 29(수)~6. 5(수) 17:00까지
 - 나. 원서접수기간: '91. 6. 3(월)~6. 5(수) 17:00까지
 - 다. 접수장소: 본 대학원 교학과
 - 라. 시험일시: '91. 6. 14(금) 오전10:00부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직)275-3256 (교)267-8131~9(2253, 2254)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수 초빙

- 초빙분야: 사물컴퓨터

대학	전공	분야
불교대학	유교철학	
문과대학	현대미술사	
경상대학	경제사(한국, 서양), 무역실무(해운 및 해상보험), 인사 및 조직관리, 관리회계, Computer Information System/Data Communication	
예술대학	영화이론 및 실기	
- 초빙분야: 전자공학 약간명
3. 자격: (가) 교육경력 5년 이상 경력사유가 없는 자로서 1991년 9월 1일 기준 45세 이하인 자(해운은 제외)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단, 예술대학 및 의과대학은 예외)
- 제출서류: (가)이력서(명함, 사진, 경력서, 학사, 석사, 박사).....각 1부 (나)학위 및 경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각 1부 (다)연구실적 논문(최근 4년내 발표된 논문 및 저서).....1부 (라)연구실적(최근 4년내 발표된 논문 및 저서).....1부 (마)연구실적(최근 4년내 발표된 논문 및 저서).....1부 (바)연구실적(최근 4년내 발표된 논문 및 저서).....1부 (가)연구실적(최근 4년내 발표된 논문 및 저서).....1부
- 제출기한 및 제출처: (가)1991년 6월 21일까지 (나)제출처: 동국대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 교학과 교수초빙실
6. 기타: (가)외국직명 대학 출신자로서 현직 하위 임의에 있는 자는 특례 할 수 있음 (나)연구실적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는 특례할 수 있음 (다)사물컴퓨터 분야 초빙예정자에게는 개별 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정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수초빙실(267-8569)로 문의 바람.

동국대학교

'92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R.O.T.C)

- 모집인원: ○○○명
- 지원자격: '91년도 4년제대학 2학년 재학생 '70. 1.1~74. 3.1 출생자(18세~22세 미만) -학교 입학·결핵사유 없는 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91. 5.20~6.20(학군단본부) -구비서류

지원서 접수시	신체검사시
-지원서 및 지약서.....1부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2부
-1학년 성적증명서.....1부	-사건(4×5cm).....2매
-교과 생활기록부 사본.....1부	-사진(4×5cm).....2매
-사진(4×5cm).....2매	
- 선발: 대학성적,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 합격자발표: '91. 12.23
- 특전: -무시험 선발 -소위입원, 증위전역 또는 복무연장, 장기복무 -외무복무기간: 2년3개월(장교중 퇴단기) -회합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전역시 직업보도실시 -대기업체 학군출신장교 우대선발 및 처우
- 문의처: 각 대학 학군단 본부

육군본부

동대신문 광고하프 (741) 1661번으로

崔載福 詩集

겨울

도서출판 第三企劃

중소기업 창업과 사업성 분석 (최신 개정판)

박준영 교수 지음

도서출판 아오

또다시 자행된 공안통치 바람 김귀정양의 죽음 불러

4천만의 단결투쟁으로 노퇴진, 민주정부수립 나설때

공안통치는 죽지 않았다. 대신에 지난 25일 노경권퇴진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도중 퇴계로4가 대한극장부근에서 상공관대생 김귀정(불문 4)양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다.

김양의 죽음은 이미 언론에서 떠드는 시위대에 의한 '암사'가 아니라 노태우정권의 '폭력적 강제진압'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의 정황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미 만 천하에 드러났다.

숨막히는 최루탄 난사

강경해진 시위진압

이날 오후 5시20분 1만여명의 시민·학생들이 대한극장앞에 모여 '폭력살인 민생파탄 노태우정권퇴진'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를 진행하자 시위대는 금세 2만여명으로 불어나면서 퇴계로일대를 가득 메웠다. 끝이 경찰은 스퀘라극장, 대한극장, 퇴계로4가 로터리등 3곳등지에서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난사하며 공격했고 당시 시위대는 아무런 방어수단도 갖고 있지 못했다.

숨이 막힐듯한 최루탄 가스속에서 시위대는 골목동자를 통해 빠져나가려했으나 많은 인원이 일시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당시 피신통로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김귀정양이 피신하려했던 미엘레스트라골목에는 봉고차1대와 승용차1대가 주차해 있어 더욱 혼잡했다.

잘 빠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대열 뒤편에 있던 여자고등학교생이 넘어지면서 20여명 정도가 같이 넘어졌다.

당시의 상황을 최재훈(현양대 영문1년)군은 "저도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바로 뒤에 백골단이 와서 곤봉으로 때리고 넘어진 사람위로 사과탄을 던

졌습니다. 한 여학생이 죽을 때까지 백골단이 발로 툭툭 차보더니 겁을 먹고 빠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실신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더라고 증언했다.

백골단은 이들을 포위후 5~6분간 그안으로 최루탄을 집중 던졌으며 어떤 백골단은 방패와 발과 곤봉으로 이들을 구타하기도 했다.

"기러기는 것은 쏠아지는 구타와 최루탄때문에 도저히 못견디서 차라리 백골단에게 잡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라며 최재훈(현양대 영문1년)군은 백골단이 시위대를 행한 폭력의 무자비성을 말한다.

이때 한 목격자에 의하면 김귀정양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아저씨, 저 때리지 마세요 저 죽어요"라며 그만둘것을 애원했고 이에 백골단은 "이년아, 집에가서 공부나 하지 데모는 왜 해"라고 소리치며 가슴등을 발로찓다고 증언한다.

경찰이 물리간후 골목입구부근에 쓰러진 김양을 4~6명이 판자에 얹혀 한겨레신문사의 차량에 얹혀 백병원에 데려갔으나 이미 숨져있었다.

'암사'냐 아니냐

김양의 사인에 대해 '시위대

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시위대에 깔려 심장소크사 또는 기도압박질식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양은 골목에서 피신하던 1백여명중 후미에 있었고 또 쓰러진 사람이 20여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이근거는 설득력을 잃는다.

당시 상황이 "넘어진 사람은 기대고 숨을 쉬기위해 엎드렸다"는 서행숙(덕성여대 불문2년)양의 증언과 무자비한 백골단의 구타등에 미루어 김양의 사인은 최루탄에 의한 질식사 또는 전경의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진압에 나선 40여분 동안 시위대를 향해 쏘아댄 최

루탄의 양이 다연발탄 2백88개, 사과탄 3백84개, KP탄 1천6백92발, SY-44 1백37개나 돼 경찰의 진압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김양의 사인은 명확히 강경대응으로 신뢰한 폭력시위진압에 있다. 그런데 사

리는 지난 87년 박정철영사 때, 그리고 이현열영사의 죽음에 분노로 떨쳐일어난 민중들의 단결된 힘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 이제는 분열과 패배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는 채 부검만 실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암사'냐 '질식사'냐를 가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못된

다. 더욱 거세진 살인진압 김양의 죽음은 필연적

문제는 어떠한 과정에서 김양이 시위도중 죽었느냐는 것이다.

강경대열사 경례식이후 분출하는 민중들의 분노에 노태우총리도 사퇴시키고 전 문교부장관 정원식을 새로이 임명했지만 전교조교사의 1천5백명해직, 사립학교법개정등 공안통치의 최선두주자를 임명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기위한 술책이었음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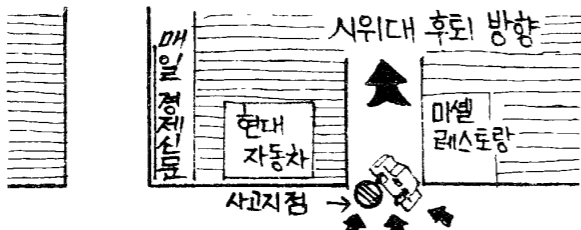
더구나 내각사퇴와 함께 이루어진 양심수석방조차도 출소를 며칠 남겨놓은 시국사법을 석방하는등 정권의 지배안정화를 위한 공안통치의 이빨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결국 변하지않은 공안통치의 한과 우리의 학우 김귀정양을 죽인 것이다.

노퇴진·민주 정부 수립에 떨쳐 나서자

이제는 명백해 졌다. 민자당과 노태우정권의 본질은 폭력이요, 독재라는 것. 그에 따라 민주화투쟁을 벌이는 학생들을 백골단을 내세워 살인적인 탄압을 자행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더이상 노태우 정권과 한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은 정의와 불의에 용감한 청년학생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87년 박정철영사 때, 그리고 이현열영사의 죽음에 분노로 떨쳐일어난 민중들의 단결된 힘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 이제는 분열과 패배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는 채 부검만 실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암사'냐 '질식사'냐를 가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못된



사랑하는 내 딸, 누가 너를 싸늘한 주검으로 만들었느냐.

'국민대회' 취재를 마치며

○·지난 24일 오후 명동성당앞에서 평화행진을 벌이던 학생60여명이 시경소속 백골단 침탈에 의해 불발연행되었다. 처음에는 행진자체를 인정해놓고도 순식간에 좌·우에서 치고 들어와 선두의 봉고생을 비롯한 중대학우, 시민들을 폭행하면서 무자비하게 연행한것이다. 이일을 저지려 놓고도 경찰은 계속 의무직원을 차단한다는 명목하에 상당수위를 원천봉쇄, 공안통치의 위기에 두려워 하는 백골단의 모습은 어처로워 보였다.

○·25일 새벽1시부터 명동성당에서의 불발연행과 시위대의 부족한 소식을 전해들은 서충원소속 학우들은 각 지구별에서 삼삼오오 짝을 이뤄 명동일대로 모여들었다. 1시10분경 계획된 신호에 따라 일제히 함성을 외치며 4백60여명 학생들은 계성여고 담을 타고 조직적으로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진입에 성공, 명동성당 문화관 앞에 집결했으며 대회의 사수를 위해 싸우고 있는 1백40여명의 환호에 찬 투쟁의 목소리속에 결합할수 있었다.

○·대책회의 사수와 3차국민대회 사수를 위한 투쟁의 결의에 찬 모습은 비가 내리는 악조건에서도 식을줄 몰랐다. 연이은 구호진행과 후강, '출정전야의 노태우소리 등이 어울린 가운데 학생·노동자·시민의 연대는 새벽3시에 가서야 잠잠해 질수 있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백골단의 선봉투쟁 전경의 단결투쟁 노태우정권 진압하자" "노태우를 백악관으로 백악관에 원폭투하 미·노일당 처단하자" 등 즉석에서 구호를 외쳐보는 지구별 장기자랑을 가져 흥을 돋구기도 했다.

○·25일 오전 명동성당은 피로를 차단당할채 골목단싸 할수없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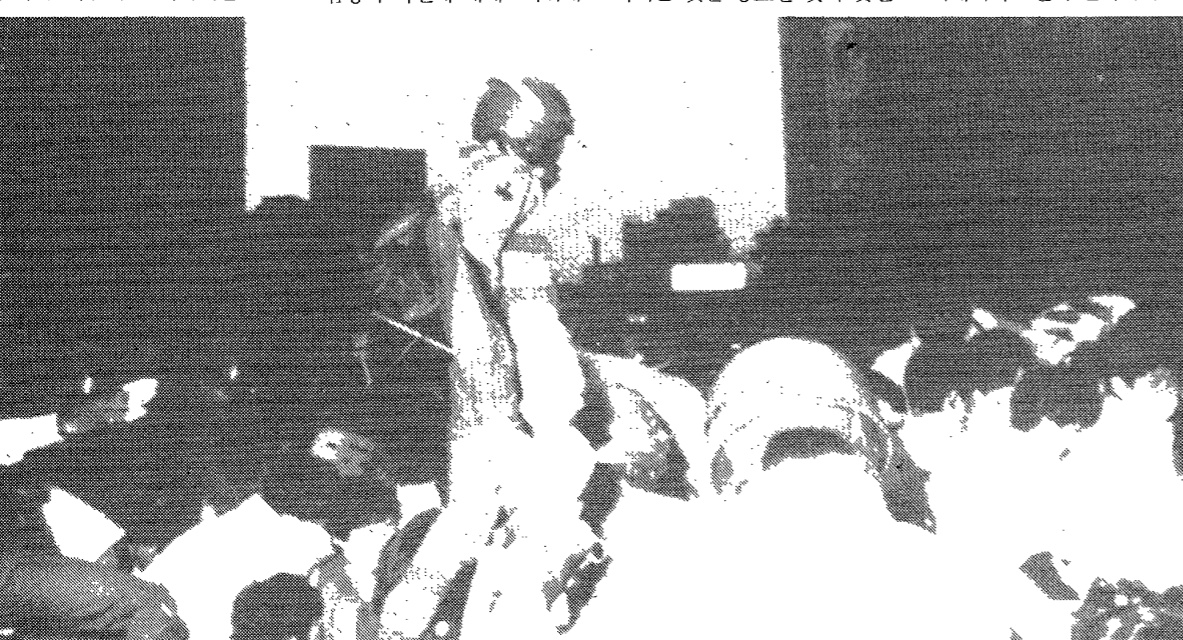
전경들의 원천봉쇄때문에 도로가 완전히 막히고 검문이 강화돼 각 대학별로 국민대회 출정식에 참가하기위해 나가려는 37명의 학우들이 그자리서 연행되어갈 정도였다.

○·3차 국민대회 2차 장소로 잡힌 대한극장 앞 가두시위가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서충원소속 학생 6백여명이 본교까지 밀리자 한참 대동세분위기에 휩싸인 본교생들을 긴장시켰다.

오후 6시30분 "성대 불문과 여학우 직격탄맞고 사망, 현재 명동 백병원안치, 사수대 급히 필요하다"는 속보안내가 나오자 학생회원은 한때 숙연한 분위기가였으며 사수대 조직, 물양 준비로 분주했다.

끝이어서 상황실로 꾸려진 총학생회실은 물품구입과 서충원 이후 대책논의로 분주했고 이날 8시이후 국민대회 준비가 전면 중지, '백병원사수'에 집중됐다.

○·백병원 진입에 실패한 학생·시민 4백여명이 을지3가역에서 시위를 계속하자 사복경찰 2백여명은 이들을 강제해산시키려 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시민 다수가 폭력에 의해 부상당했다. 한 시민이 "오늘



너희가 우리를 짓밟고 누를때마다 우리의 분노는 더욱 커진다.

"아저씨, 때리지 마세요 저 죽어요"



검태기는 바뀌어 졌다. 이제 몽둥이와 최루탄, 방패가 너희의 흥기가 되었구나.



귀경이도 이렇게 죽었나

바람부는 날

운문부 장원

전 용 문(보성고3)

어지러이 피어 환절 흔들린다.
세백안개같은 민들레 흩날 바람에 날리던
어둠 밤 정문을 여는 마음으로 강변을 나섰다.
문득 바람 앞에 서면
어디서 나를 부르듯이
강물은 잔잔한 파동을 그리고
슬픈 일새들 부대끼며 섞이는 소리를 이룬다.
이런 무성한 소리속에
습습한 강가에 앉아
이제는 나의 꿈의 되어 상처입은 말들을
빛방울 맺힌 잠들들의 뿌리에 묻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비를 맞던 어린시절
두근거리며 살아온 시간의 안설에
푸르게 새겨진 기억의 깊이를 정성스럽게 헤아린다.

바람 부는 날
강물과 풀잎과 별과 그리움
이런 진정 아름다운 말들을
바람속에 던지면
바람의 중앙에는 아름다워져
나는 그중아리를 베고
한낮의 꿈을 꾸다.

운문부 우수1석

이 정 민(마산제일여고3)

벙어리
비구니
마담소리로
머리 감는다.
물이 흐른다
영커 토해내는 물레같은
추락할때마다
가슴, 가슴꺼내
연꽃빛 눈물
손톱금으로
아리아리
눈이
감진다.
바람은 저리 부는데...

운문부

올해는 용모자의 수도 예년보다 많았고 또 작품의 질적 수준도 전체적으로 향상되어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7명으로 예정했던 입선자의 수를 9명으로 늘렸지만, 그렇게 하고도 입선자의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의 적절하게 고심을 했다.
시는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시를 쓰려는 사람은 상식과 인습에 얽매지 않는 개성적인 눈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시사에 있어서 첫번째로 내세울 유의사항이다.
그러나 개성적인 눈이라고해도 그것이 과약한 사람의 모습이 적절한 언어를 통해 구체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두번째로는 언어선택의 적절성 여부를 살피는 또 하나의 심사기준을 설정했다.
각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9편의 입선작은 모두 위에 든 두가지 심사기준을 그나름대로 충족시켜 주고 있다. 특히 장원과 우수작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입선하지 못한 작품중에도 버거가 아가운 것이 많았음을 밝혀둔다. 입선을 했다고 만만해하거나 낙선을 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노력바란다.

김 장 호(시인·사범대교수)
이 형 기(시인·문과대교수)

심사 소감

소설부

이렇게 되었다.
이 5편중에서 가장 읽자리를 차지한 이지향양의 글 중에서는 결말 부분이 오히려 여운을 잃어버린 듯하다. 이것도 지적할 수 있겠다. 입선작 모두의 꾸준한 문장수업을 기대한다.

한 용 환(소설가·사범대교수)
김 문 수(소설가·동문)

수필부

붓기는 대로 쓰는 글이 수필이다. 그러나 그 속에 쓴 사람 마음의 행로가 부각된다. '가을'과 '길'이라는 주어진 제목으로 백일장에 참가한 학생들의 글 속에는 쓴 사람 마음이 언어에 투여되어 문장이라는 길 속에 오롯이 담겨져 있었다. 애뜻한 사연, 감춰진 정감, 그만그만한 일상사들이 말은 우리들은 이같은 별빛 중에 정 확한 문장, 가다듬은 생각, 신변잡사를 너그러게 나열하지 않은 것을 입

소설부 장원

이 정 민(마산제일여고3)

내가 쫓던 모든 것은 결국은 허상일 뿐이었고 그 어떤 지향도 지표도 없었다. 내가 가진 거라곤 자기 기만과 자학과 따라오는 자기 연민과 공연한 객기밖에 없었다.

창에서 고개를 돌렸다. 멀찍이서 많은 희미한 빛이 있었음에도 좀 더 기만 이 잠깐 차려 보였다. 옆자리에 앉은 검은 얼굴을 한 청년의 사내는 통 통 통으로 기우뚱거리며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그리고 위치를 대충 확인 하는 듯 하더니 다시 잠 속으로 빠져 들었다. 물이 날은 하늘색 셔츠에 달

이 입이 반질반질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머리가 내게로 기울어 왔다.
이런 사람들은 소시민이라기 보다는 생활인이라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때때로 이들을 대하면서 내 삶에 서글프거나 위안을 찾을 때도 있었다. 그래도 내게는 열 집과, 함께 할 가족과, 삼류잡지사 일지라도 일 할 곳이 있으므로 몸 하나만으로 일 상과 부대끼며 그날 그날을 살아가는 이들 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달래었다.
남다라 쏟아져 나오는 많은 얘기들을 접하며 더 이상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못하여 그저 무덤덤히 지내었다. 그런 나였지만 아직은 완전한 불 감은 아닌지 오늘, 편집장의 요구엔 뒤쳐 나고 말았다. 그는 팔기 위한 모든 것을 두어시간 귀족을 피고 있던 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치 뉘뉘 하듯이 잔잔하게 얘기를 했다.
"이러고 있어 본 일이 없나? 차 한 바다 소리가 들려요. 무엇인가 애

달 때도 나는 직장을 잃지 않았고 많은 회의가 있었음에도 좀 더 기만 이 잠깐 차려 보였다. 옆자리에 앉은 검은 얼굴을 한 청년의 사내는 통 통 통으로 기우뚱거리며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그리고 위치를 대충 확인 하는 듯 하더니 다시 잠 속으로 빠져 들었다. 물이 날은 하늘색 셔츠에 달

달 때도 나는 직장을 잃지 않았고 많은 회의가 있었음에도 좀 더 기만 이 잠깐 차려 보였다. 옆자리에 앉은 검은 얼굴을 한 청년의 사내는 통 통 통으로 기우뚱거리며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그리고 위치를 대충 확인 하는 듯 하더니 다시 잠 속으로 빠져 들었다. 물이 날은 하늘색 셔츠에 달

달 때도 나는 직장을 잃지 않았고 많은 회의가 있었음에도 좀 더 기만 이 잠깐 차려 보였다. 옆자리에 앉은 검은 얼굴을 한 청년의 사내는 통 통 통으로 기우뚱거리며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그리고 위치를 대충 확인 하는 듯 하더니 다시 잠 속으로 빠져 들었다. 물이 날은 하늘색 셔츠에 달

달 때도 나는 직장을 잃지 않았고 많은 회의가 있었음에도 좀 더 기만 이 잠깐 차려 보였다. 옆자리에 앉은 검은 얼굴을 한 청년의 사내는 통 통 통으로 기우뚱거리며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그리고 위치를 대충 확인 하는 듯 하더니 다시 잠 속으로 빠져 들었다. 물이 날은 하늘색 셔츠에 달

달 때도 나는 직장을 잃지 않았고 많은 회의가 있었음에도 좀 더 기만 이 잠깐 차려 보였다. 옆자리에 앉은 검은 얼굴을 한 청년의 사내는 통 통 통으로 기우뚱거리며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그리고 위치를 대충 확인 하는 듯 하더니 다시 잠 속으로 빠져 들었다. 물이 날은 하늘색 셔츠에 달

달 때도 나는 직장을 잃지 않았고 많은 회의가 있었음에도 좀 더 기만 이 잠깐 차려 보였다. 옆자리에 앉은 검은 얼굴을 한 청년의 사내는 통 통 통으로 기우뚱거리며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그리고 위치를 대충 확인 하는 듯 하더니 다시 잠 속으로 빠져 들었다. 물이 날은 하늘색 셔츠에 달

달 때도 나는 직장을 잃지 않았고 많은 회의가 있었음에도 좀 더 기만 이 잠깐 차려 보였다. 옆자리에 앉은 검은 얼굴을 한 청년의 사내는 통 통 통으로 기우뚱거리며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그리고 위치를 대충 확인 하는 듯 하더니 다시 잠 속으로 빠져 들었다. 물이 날은 하늘색 셔츠에 달

그 내 감정에 휩싸여 다시 침울해지 는 내게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바다로 가서서 무얼 하실건가요?" 인어 공주처럼 물거품이 되실래요? 아니면 물이 되어 먼 아틀랜티스로 가실건가요?" 나는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 가 날 꾸짖는 것인지 그녀 자신을 물 아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 이었다.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웃으 며 나를 뻔히 들여다 보았다. "Let it be"란 노래 아세요? 비를즈 노래네"

그 사



무슨 뜻인지를 몰라 아슬하게 대답 했었다. "아... 몇년...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 노래의 뱀짓이란 말은요 내버 려 두렵다는 뜻이래요. 작사가의 어 머니는 아들이 힘들거나 슬프고 지쳐 실의에 빠져 있을 때는 조용히 그 한 말쯤만 하겠다고 해요. '애야 내버 려 두렵' 실은 저도 이런 말을 할 자 격이 없지않아요. 동류에 같은 것이 느껴졌나봐요. 젊음의 특권으로 마음 쉼고 버려도 바라는 것만도 많았지만 만 길로 죽던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 고 봐요. 뱀짓이란 말, 물론 그 노래 전체 가사와는 맞지 않았지만 실은 완전주의를 부르짖기 보다는 내버려 두는 미덕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나는 무엇인가 가슴을 치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녀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위험할 수도

SCOUPE-α 시판기념 특별판매!

※ 국내 최초의 독자개발모델-알파 엔진!

「스쿠프」알파-12V장착 파워드라이브의 새로운 세계

- 1) 기간 : 91.5.22~6.30일
- 2) 판매조건
 - 가) 가격 : 스쿠프 'L'형 → 6,100,000원 (특별사양별도)
 - 스쿠프 'LS'형 → 6,950,000원 (특별사양별도)
- 나) 조건
 - 현금 구입시 → D/C 300,000원
 - 정상할부 구입시 → D/C 100,000원 및 12,24,36회 할부
 - 'L'형 계약인도금 1,220,000원부터 3,050,000원
 - 'LS'형 계약인도금 1,390,000원부터 3,480,000원 ('L'형 및 'LS'형 부대비용별도)
- 분납 → D/C 없음
- 'L'형 → 500만원 20회(매월 250,000원)
- 'LS'형 → 550만원 20회(매월 275,000원)

3) 91년 6월 30일 출고분까지 특별조건 적용하며 재고부족 등으로 6월 30일까지 출고 불가시에는 특별조건적용 불가함.

현대자동차(주) 을지로6가 영업소

• 278-1091~6 • 소 장 권병오 • 업무과장 안동욱

항상 고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 을지로 6가 영업소에서는 차량 구입에서 등록까지 모든것을 깨끗히 마무리하여 드리고 전화만 주시면 즉시 저희 직원이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디자인

방/학/특/강

하루 3시간이면 됩니다!

디자인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19년 전통의 우석에서 첨단디자인 세계에 입문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교육과목	교육 내용	오전정원	수료기간
그래픽디자인	광고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포토샵, 패제지, 편집	20명	2개월
인테리어디자인	도화-기초디자인, 실내공간설계-가구디자인	20명	2개월
디스플레이	패션일러스트, 디스플레이-코디네이션	20명	2개월
투시도	실내외 투시도 작도, 칼라링-컴퓨터그래픽	20명	2개월

1. 접수마감 : 1991.6.28(금) 까지
1. 입학자격 : 전문대 및 대학재학생에 한함 (전공과 무관)
1. 교육기간 : 1991.7.1(월)~8.30(금) 까지

* 본 학원특강은 우수디자인 연구소 교육을 겸용합니다.

디자인교육의 본고장 우석디자인학원 WOOSEK DESIGN ACADEMY

총의대 앞 4호B/D(학원) 新우석B/D(연구소)
안내전화 : 333-4018(대표)
338-3838(대표)

컴퓨터

개강 : 매일 첫째 월요일
동학권 발급, 휴일도 접수함.

22년의 전통 높은 취업률 풍부한 실습시설 국내 최대의 전산학원

프로그래밍 정규과정

- 프로그래밍 정규과정 7개월
- 프로그래밍 속성과정 4개월
- 마이크로 BASIC, MS/DOS 과정
- UNIX, AUTO CAD 과정
- COMPUTER GRAPHIC 과정

과목별 선택수강 가능

컴퓨터 총론, FORTRAN-1, COBOL-1, FORTRAN-2, COBOL-2, PASCAL, ASSEMBLY, BASIC, MS-DOS, DATA BASE, WORD PROCESSOR, LOTUS 1 2 3, SYMPHONY, SYSTEM 분석 및 설계, C-LANGUAGE, AUTO CAD-1, 2, 서브구조, 통계학

서 초	2,3학년	교과목	강사
521-1761	5	외환은행 2년-4년	최영준
631-1921	5	외환은행 4년-5년	최영준
766-1811	5	중앙일보	홍영준
313-1711	5	중앙일보	홍영준
466-1611	5	부산 부산	홍영준
522-3801	5	부산 부산	홍영준

컴퓨터 교육의 명문 중앙전산학원

英·日·中·露·獨·佛語

고려외국어학원

대표전화 739-8000, 7000, 6000

종로 YMCA 건너편 양우당서적코너 빌딩

BE WINNERS

외국어교육의 센터

고등학생 문학콩쿠르 입상작

있을 야간 열차 여행을 하는지가 궁금해졌다.

“어찌껏 본인 말씀을 앉으시는군요. 무엇보다도 이 기차를 타셨는지 그리고 누구인지 말해 주실수 있습니까?”

그녀의 눈동자가 먼 무엇을 쫓듯이 멀어졌다. 그리고 다시 내게 말했다. “저 역시 인생을 아프게 살아가는 한 인간일 뿐이지요. 그리고 여지껏 한 애인 당산제 한 애인 동시자 제의 얘기가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나를 내 걸작 속에서 끄집어

에 있던 바다 역시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어쩌면 우리가 귀에 손을 대고 들었던 소리가 따로 진정한 바다인지도 모르지요. 그럴 때로 가시든 안 가시든 안녕하... 끝이 D역에 도착했다는 방송이 있고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나도 그녀를 이대로 보내서는 안될 것 같은 조바심에 가방을 챙겨 들고 그녀의 뒤를 따랐지만 역에서 나온 순간 나는 그녀의 모습을 잃고 말았다. 마치 한 여름, 가슴을 행하니 울리던 꿈처럼 그녀는 내 앞에서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멍하니 섰다가 D시의 바다를 포기하고 돌아오는 차표

사람



자리를 비켜주었던 사내가 부시시 몸을 떨고 일어섰다. 기차는 벌써 D시에 도착해 있었다. D시, 내 잊혀진 기억을 일깨우는 또 하나의 낯날 각자의 짐을 챙겨 들고 나서는 사람들을 따라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생각 없이 개찰구를 지나 역을 벗어나가 부연 새벽이 싸늘한 김으로 나를 맞았다. 길 건너 가로등이 켜진 벤치들이 보였다. 축축한 아스팔트를 지나 역시 물기 가득한 벤치에 가 앉았다. 불빛타인지 추위타인지

그런다 자츰 생활의 태를 잡아가면서 그 얼굴은 아래로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고 그 위에 다시 일상이 앙금들이 쌓여왔었다. 내 젊음의 고쳐를 받았던 그녀의 기억을 들고 스스로와 타협하며 간간히 고개드는 회의는 슬로 쫓으며 살아왔었다.

자리를 비켜주었던 사내가 부시시 몸을 떨고 일어섰다. 기차는 벌써 D시에 도착해 있었다. D시, 내 잊혀진 기억을 일깨우는 또 하나의 낯날 각자의 짐을 챙겨 들고 나서는 사람들을 따라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생각 없이 개찰구를 지나 역을 벗어나가 부연 새벽이 싸늘한 김으로 나를 맞았다. 길 건너 가로등이 켜진 벤치들이 보였다. 축축한 아스팔트를 지나 역시 물기 가득한 벤치에 가 앉았다. 불빛타인지 추위타인지

제29회 고교문학콩쿠르 입상작 명단

- ◇문문부
 - △장 원=전용문(보성고3)
 - △우수1석=이정민(마산제일고3)
 - △우수2석=한상호(부산공고3)
 - △우수3석=도현혜(덕수상고3)
 - △佳作1석=이계화(명성여고2)
 - △佳作2석=조동홍(부산성성고3)
 - △佳作3석=이명옥(순천여고2)
 - △佳作4석=정장길(광주기계공고3)
 - △佳作5석=이경화(창영여중고3)
- ◇소설부
 - △장 원=이지향(부산성모여고2)
 - △우수1석=송수진(송곡여고1)
 - △우수2석=이영희(덕성여고2)
 - △佳作1석=홍명옥(경동고3)
 - △佳作2석=정미진(이화여고3)
- ◇수필부
 - △장 원=안미영(이화여고1)
 - △우수1석=송수진(송곡여고1)
 - △우수2석=문혜연(대전신일여상1)
 - △佳作1석=김동경(경동고3)
 - △佳作2석=송은주(전주성심여고2)
- ◇단체상
 - △이화여자고등학교 문예부

동대신문사

어느정도 감정이 안정이 되자 다시 여러가지 생각들이 물러왔다. 우선 바다로 가야 할 지 이변에도 불구하고 할 지 그리고 내가 버린 직장과 나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과 앞으로 내게

수필부 장원

길을 걷다가도 한번보고 내 모양새가 궁금해 질때, 호리호리한 모습을 보여 주기가 싫을때, 하던일이 지루해져서 도저히 참지지가 않을때, 난 귀중한 보물을 보듯듯이 조심스럽게 거울을 꺼낸다.

거울을 본 순간 난 당황했다. 이상하다. 이런 전율이 난몸을 휘감아 시작한다.

거울속의 나는 내가 아니다. 아니, 코, 입, 이마를 뜯어봐도 나임은 확실한데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낯선 느낌을 준다. 그러나 얼굴이 너무 조그맣다는 이유로, 코가 너무 조그맣다는 이유로 으름장을 원망도 해본다.

그때, 그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얼굴이 너무 넓적하다는 이유로, 코가 너무 조그맣다는 이유로 으름장을 원망도 해본다.

얼굴에. 어지러운 세상안에 있는 오월 어느날 내가 가고있는 '인생의 길'을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을 두고 무엇인가를 향해 각자가 만든 인생의 길을 밟으며 간다. 어떤 사람은 급하게, 또 어떤 사람은 여유있게 그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 모두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수필부 우수작

가고있는 것이다. 나에게도 열일곱살 때에 걸었던 길을 그 '무엇'을 위해 가게 되겠지.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짜리꾼'같이 걸어가고 싶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 여정을 떠난 이 문은 지금처럼 높다랗고, 단단한 담이 아닌 앞마당이 다들여다 보이는 그런 문이었던 것이다. 바로 어느 누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마음의 문이냐, 어떠한 사람도 받아들일수 있는 편사들의 문이 아닐까?

짜기고, 소위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아프고, 다친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길을 나는 사랑하며 걸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술' 같이 걸어가고 싶다. 우리네 조상들이 옛부터 만들고 다듬어온 술은 우리들의 밀거름이 되어왔다. 누가 그랬던가? '사람은 술에서 나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술에 물린 한알의 씨앗은 흙속에서 자라서 싹을 맺고, 흙속에서 사는 생물은 흙으로 인해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무엇인가 주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너무나 평범한 것일지라도 사람들은 그 진실을 의면하고, 굳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못해 그 길을 헤매며 간다.

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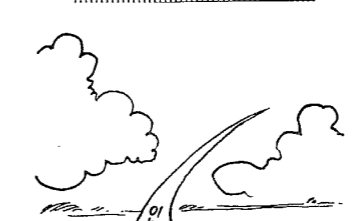
로 불렀으니까, 내가 "정말?"이라고 되물으면 아내는 "그래, 하늘땅, 별명" 하면서 날 믿게 하였다. 난 지금도 그 분의 눈에는 예쁜 공주님이다. 아마 내일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접하면서 나보다 예쁜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어슴프레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마음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라"



그때, 그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얼굴이 너무 넓적하다는 이유로, 코가 너무 조그맣다는 이유로 으름장을 원망도 해본다.

그때, 그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얼굴이 너무 넓적하다는 이유로, 코가 너무 조그맣다는 이유로 으름장을 원망도 해본다.

길



세상에 참으로 더러운 것들이 많다. 썩은대로 썩어지지 않아야 할 것들도 내가 사는 이곳엔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 모든 더럽고, 썩은 것들을 내가 할수 있는 때까지 그것들과 싸워서 깨끗하게 하고, 없애고 싶다. 더 좋은 것들로 만듦을 위해...

그렇게 내 인생의 길을 나는 겸허하게 걷고있다. 그 길이 험하고, 아파도 말리다.

나는 내 인생의 길을 '하늘'같이 걸어가고 싶다. 하늘은 항상 내가 동경해온 이상향이었다. 항상 바라다 보면 주인공은 하늘은 내곁이었다. 슬프고, 기분이 우울할때 하늘을 바라다보면 마치 인생을 달관한 사람처럼 날 위로하는 듯했다. 그리고, 기쁨에 바라다보면 맑고, 개인 하늘은 더없이 맑아져서 빛나고 계속 쳐다보게 했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나인 다른 사람이 기쁘면 달가와 하지않고, 슬퍼서 애절함을 모르면 자신의 기쁨이 행복으로 방관하곤 한다. 난 그런 인간상을 너무나 경멸한다. 그런 이기주의가 내마속에 있다는걸 발견할때 미칠것 처럼 내마음을 뛰어박곤 했다. 그렇게 하늘처럼 누구나 바라봐도 하나의 모습을 가진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일 것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길들을 하나씩 따르는 기도처럼 걷고있다. 아주 간절한 기도로...

송수진(송곡여고1)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찾아 오가기 시작했다. 나도 힘차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다. 희뿌연 아침안개 속으로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 손들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이 빈약한 손들처럼 내 가슴도 어느새 시퍼런 멍들이 든 건 아닐까... 나는 그동안 어쩌면 내가 가졌던 그 모든것들을 잃고 살아왔는지 가슴이 아프며 눈물이 흘렀다. 눈물... 아, 내겐 그래도 아직은 이치릴 따듯한 눈물이 남아 있구나. 그래도 아직은 부부러운 내 모습을 아파할 가슴이 남아 있구나. 무엇이든 커다란 덩어리가 걸려 나오지 않던 울음이 서서히 깊은 곳에서 퍼져 나갔다. 그리고 그와 함께 희미하게 흔들리던 그녀의 모습이 달빛처럼 분명히 다가왔다.

남겨진 삶들의 무게가 구체적으로 느껴졌다. 어느새 동년하늘이 별장게 밝아오고 있었다. 서서히 보이는 태양의 장엄한 비상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다. 그리고 아침이다. 아무런 밤은 접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아침이다. 아침은 내게도 역시 아침이며 내게도 꼭 같이 빛을 주지 않는다. 나는 이번에도 D시의 바다를 포기하기로 했다. 아니 포기하기 보다는 다시 새로운 다음을 기억하면서 발걸음을 돌리기로 했다. 그리고 내게 남은 삶, 조급증 힘들더라도 내 마음속의 바다를 묻지 말고 살아가리라 결심했다. 내겐 이미 바위를 돌릴 줄은 없을 지라도 그 돌들에 숨지않을 용기를 가지리라. 자라라 부시길 지라도 안주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찾아 오가기 시작했다. 나도 힘차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다. 희뿌연 아침 안개 속으로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의 풍경을 가로막던 어둠은 사라졌으

佛語

00,6000 코너 빌딩

센터

1년간 지속되는 영어연수?

"같은 비용으로 해외연수와 1년간 영어교육프로그램을 동시에"

해외학연수는 더욱더 큰 영어공부예의 의욕을 돋우어 줍니다. 그러나 그 열기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칫 추억으로만 남기 쉬운 30일간의 연수-추억이 아닌 자기만의 재산으로 만드십시오. 열일 30일간의 열기를 365일 인강해 드립니다.

살아있는 영어학당 UNI-ELIM CLUB

1년간 정규교육프로그램과 1개월의 영어습득을 기본목표로 하는 다양한 Activity(외국인과의 meeting, 세미나, party, game, 등산 등 레크리에이션...)를 통해 문법, 독해, 어휘, 청취 및 회화 등 영어에 관한 모든 것을 즐겁고 자유롭게 마스터할수있는 특별한 회화제도입니다.

회원들은 본인의 거주별별 회화반(학습자수, 각종정보, 교양등의 내용)을 무료로 독하게 되어, 휴가, 취직, 이민(비자), 정보제공 및 상담, LOUNGE, LAB 등 자유 이용, Shuttle bus 운행등의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청마감: 1991년 6월 5일까지 각 대학별로 제한된 인원을 선발하므로 마감일전에도 신청은 접수 마감될수 있음

신청방법: 본인 소정양식의 참가 신청서

상담·문의 549-3411~3

제3회 전국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

농협이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대학(원)생 여러분의 논문을 현상공모합니다. 우리의 농촌·농업·농협 발전에 관한 대학(원)생 여러분의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협의 역할과 사업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실시하는 본 논문공모에 참가하시는 대학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논제: 4제중 택일
가. 농산물 시장개방과 한국농민의 대응전략
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다. 지방화 시대의 농협역할
라. 농협의 농산물 가공사업 참여방안

2. 응모자격: 전국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3. 응모마감: '91년 9월 7일(금일 소인분도 유효)

4. 당선지표: '91년 10월 10일(당산기개별별지 및 농민신문 게재)

5. 시상: '91년 10월(수) 예정
● 최우수작(1명): 상금 300만원과 상패
● 우수작(2명): 각상금 100만원과 상패
●佳作(5명): 각상금 50만원과 상패

6. 응모요령
가. 응모매수: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나. 제출처: 농협중앙회 홍보실(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75번지, 우편번호: 100-707)

7. 기타
● 논문 제출시 연락처를 명기(해학증명서 1통 첨부)
● 공모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의 저작권은 본회 소유임
● 학교명이 인쇄된 원고지는 사용할수 없음
● 기타사항은 농협중앙회 홍보실로 문의바람.
(전화: 737-0021~9, 교환 7741)

농민의 꿈을 소중히 기우는 농협

개강 6월 3일

영어·일어
러시아어
TOEFL 600
GRE 2000
GMAT 700

종각엽·종로 2가·734-2442

시사영어학원

신규 교수채용 작업 본격화

“연구위 설치는 학생참여 사실상 배제” 주장 교과위, 8차례 면담통해 합의사항 이행 촉구

서울캠퍼스 중앙교과과정위원회(위원장=강정현·교육3)는 지난 5월초부터 신규교수채용을 위한 사안별 연석회의를 열면서 학교측의 신규교수채용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학교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91학년도 2학기 신규교수채용 해당학과로는 서울캠퍼스가 인도철학, 회계, 무역, 영문, 경제, 경영, 정보관리, 연극영화 등 8개 학과이며 경주캠퍼스는 국문, 관광경영, 한의학, 불교이동, 생물, 화학, 조경, 전자계산, 수학교육 등 10개학과로 총 18개학과에 대한 교수채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앙교과위는 지난 16일 교수채용을 위한 1차 사안별 연석회의를 서울캠퍼스 해당 8개학과중 7개학과 학생회장·교과위원장 참석하에 가운데 열고 실질적인 공동대처방안 모색으로 교수채용과정상의 학생참여의 정당성보장, 그간 교수채용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는 홍보자료와 주제마련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21일 2차 연석회의에서는 선진지침사항으로 교수채용모집 광고문제의 관련, 교무처장(김인제·경제학)과의 면담내용을 보고하면서 교과과정상과 측면과 교과위 교수대표를 선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무처는 지난 23일 일간지를 통해 교수채용방식을 공개했으나 교과위의 합의사항과 다른 해당과목을 명시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31일 중앙일보에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위의 교수채용 참여에 대해 학교측이 강경입장을 취하는 것은 “말로는 학생참여를 보장한다 하지만 제도상으로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교과위는 밝혔다.

한편 이제까지 교수채용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교과위와 학

교과위의 8차례에 걸친 면담을 가졌는데 기존 88년 학자부 합의사항과 91년 1월4일자 신규교수채용 합의사항, 91년 1학기 등록금협상과정상의 합의사항이 진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수한 신규교수 임용의 채용기준, 절차, 방법등의 관련사항을 연구하기 위한 신규교수채용연구소위원회의 구성을 논의한데서도 잘 나타난다.

각과과별 상황을 보면 정보관리학과는 경우 지난 22일 오후4시 교수·학생간 간담회를 가졌으며, 무역학과는 4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11시30분 교수채용을 위한 교과위모임을 정례화해 타과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주캠퍼스 91학년도 2학기 신규교수채용은 10개학과에서 총원할 계획이다.

예정된 학교일정으로는 2학기 교수채용과도 불교·농, 생

물, 화학, 조경, 전자계산, 수학교육, 한의학, 의하중 등 8개과였으나 1학기의 교수채용과 중 미충원된 국어·국문, 관광경영 등 2개과가 포함된 것이다.

한의학과는 1, 2학기 두번의 교수채용이 있으며 이번 1학기의 5개 미충원과의 미충원

사유로 한의과는 지원자가 없었으며 나머지 4개과는 적인가 없어서 충원이 안됐다.

또한 관광경영학과 교수채용은 2학기 별도로 외국인 특채선발로 방학중 뽑아 채용된 교수에 의한 강의는 2학기부터 실시된다.

불상 보수작업 곧 착수 상징물관리 독립예산 책정 시급

본교 건학이념을 나타내는 상징물에 대한 보수작업이 하계방학중 불상에 한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불상바닥의 인조대리석 파손, 불상일 철제조각부식 등 본교 상징물에 대한 파손피해가 심하자 불상보수 전문가와 피해상황을 조사·검토하고 “1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불상바닥 보수와 부식된 철제조각의 부분적 보수공사를 곧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30일 정기총회에서 환불액의 불상보수비사용을 결의했던 불교학과학생회는 전학년의 참여를 위한 사전 서명작업을 통해 환불금을 판단위로 받아 오는 9월내 불상보수에 사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한편 불상에도 코끼리상 바다보수, 불상주위 조경수 교재들은 예산부족으로 준비되고 있지 못해 학내 상징물의 보수·관리를 위한 독립예산 책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교백일장 19명 입상 작품수준 향상...단체상에 이화여고

본사 주최 제 29회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1차 심사에서 입선한 남녀 고교생 1백40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문부, 수필부, 소설부로 나뉘어 지난 25일 교내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문학콩쿠르는 오전 10시30분 본사 주관 박영길(법학)교수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개최식을 가진뒤 2시간여 동안 각해당부문 작품을 쓰고 오후4시에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은 민병철 총장의 지시에 이어 심사위원인 스운문부=김정호(국교) 스운문부=김진학(경주 국문) 스운문부=김문수(문문소설가) 등으로부터 각 부문별 심사소감을 듣고 곧바로 시상식에 들어가 스운문부 장원=전용문(보성고3) 스운문부 장원=이지향(부산 성모여고2) 양 스운문부 장원=안미영(이화여고1) 등 입상자 19명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했으며 단체상은 이화여고로 돌아갔다.

한편 이날 작품제목은 스운문부=‘바람부는 날’ ‘고개위에서’ 스운문부=‘그사람’ ‘소나기’ 스운문부=‘길’ ‘겨울이있다’.

〈입상자 명단 및 입상작품 6, 7면〉

노사협상안 조인 늦어져 직원인사위 노조대표 참석 합의

제3대 직원노조는 ‘91임금협정 및 단체교섭’을 기본급 7%와 분봉2원8천원 인상등을 합의했으나 일단 학교가 정관계정을 이행한후 모두 지급하기로 하던 야기도 미결상태로 남았다.

이노조가 지난 4월2일 총회를 통해 1백3명의 만장일치로 ‘91임금협정’을 기본급 9%와 별도로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분봉 5만원 인상결의에서 후퇴한 분봉 인상(2만8천원)마저 완전히 적용받지 못한 상

태(우선 1만8천원만 발송)이고 ‘단체교섭’에서 인사제도 개선안도 오늘(29일) 재단사회에서 학교의 정관계정이 통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번 노사협상의 효력을 얻게된다.

이렇게 91임금 및 단체교섭을 실질적 성과물없이 학교의 자율성 회복에 기대를 하는 형편이다.

한편 노조부위원장 장운(관계과)씨는 제3대 노조가 결성되면서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인사원칙을 세우는 것과 사무적, 기능적 등 직종간의 갈등완화를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만큼 “이번 단체교섭에서 ‘직원인사위원회’에 직원노조대표가 참석할 것과 행정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것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레코드판 60장 기준 황수영 전 총장이

황수영 전총장이 경주캠퍼스 교직원음악감상실(실장=윤경모·철학3)에 지난 25일 60장의 고전음악 레코드판을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레코드판은 ‘음악의 유산’이란 제목하에 고전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작곡가별로 6쌍씩 10편 진전형태로 되어있다.

여학생 생활교육

여학생감실에서는 생활관 입주시습을 통한 생활교육을 내달 24-25일, 27-28일 2회에 걸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새로운 여학생상을 정립하고자 실시하는 이 생활교육은 토론회, 비디오상영, 선배와의 대화 등의 시간을 갖게되며 내달 14일까지 여학생감실(계산관측)에서 신청을 받는다.

총학·총대 - 졸준위 이견 조정 앨범사진 촬영일정 확정

지난 27일 총학·총대와 졸업준비위원회간 이견을 보였었던 앨범제작 선정이 합의됨으로 앨범사진촬영일정이 확정됐다.

졸준위에 따르면 학사모·정장사진은 오는 31일부터 6월21일까지 신명스튜디오에서, 그룹·단체사진은 오는 31일부터 6월15일까지 불상앞에서 각각 촬영하게 된다.

이런 촬영일정은 지난22일 오후2시 정우식(철학4)총학생회장, 심철신(사화4)총대부회장, 박상구(야간산공4)졸준위원장 등 6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

학회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건져서 내용의 미흡인정, 11개단대 상인위 합의서 제출로 앨범제작 선정과정중, 총학은 위 참가로 사업보고및 사업공개에 합의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총학, 총대가 학생회에 통보한 선정스튜디오와의 계약체결의 기해무효화에 대해 총대는 “기간의 명확한 사업의 공개를 통해 앨범제작계약 문제가 해결될 경우 인위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캠퍼스 제2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이동은·영

문4)는 어제(28일) 91학년도 앨범제작 업체로 ‘천연사진관’과 수의계약했다.

이날 졸업위 사무실에서 가진 계약에는 요구석 총학생회장과 문성훈 총대의원회의장, 4학년 과대표 10인이 참석한 가운데 앨범 1부당 3만6천원, 1천6백부 제작, 촬영시기 6월 초 등을 잠정결정했다.

이에따라 졸업위는 대동제 이후 앨범제작에 필요한 사진을 공모할 계획이며, 이번 앨범제작에는 졸업준비비 3천원이 포함되어 있다.

야계사방 - 댐 준공 손경수 동문에게 감사패

본교 연수원리리스(소장=오정수·입학)는 야계사방 및 댐 준공식을 지난 25일 오전11시 경기도 윤길산연수원(경기도 남양주군 소재)에서 이해충종과대학장등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5천5백여만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한 손경수(입학·57졸)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야계사방 및 댐이 준공

됨으로써 수량조절을 하여 하천의 범람으로부터 도로, 농경지 유실등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축석공, 활석공, 콘크리트공 등의 다양한 토목공법을 선보여 본교생 및 경기도 일대 학생들의 시정각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준공된 댐의 규모는 상상 29m, 하자 17.8m, 물·말이 10m 높이고 야계사방은 4백m의 길이를 갖고 있다.

ROTC 연꽃제 태권도 시범등 보여

서울캠퍼스 학군사관후보생의 제3회 ‘제31회 연꽃제’가 제112 ROTC 명예위원회(위원장=조환현·식품공학4) 주최로 지난 25일 오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연꽃제는 집도단, 기수단 입장, 개회선언, 축하곡목, 후보생 장기자랑, 태권도시범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한편 경주캠퍼스 ‘제11회 연꽃제’는 내일(30일) 오후4시 문무관에서 열린다.

스님들의 분노 불교도 대위 이후 광화문까지 평화행진이 전경의 폭력저지를 무산되자 한 스님이 도로에 주저앉아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학생회 강화 위한 특별감사 실시 일부 감사 연기...자료준비 미흡 여전

중앙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득연·국문4)는 제23대 총학생회 특별감사를 지난 22일 오후5시 총학실에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참석시킨 가운데 실시했다.

제1/4분기 정기감사는 지난 4월초부터 각 단대를 비롯한 중앙자치기구에 대해 실시해 왔는데 현재 정기감사가 이뤄지지 못한 곳은 총학, 학부위, 졸업위, 공대 등 4개 자치기구이다.

총학의 경우 현정세가 비상 시국체제로 돌입, 일정기간에 감사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으며 4월28일 4차에 걸쳐 최종적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까지도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감사특위는 감사시행계획 제23, 24, 25조에 의거 91년 1/4분기 감사가 있어 1차 정고를 취하고, 특별감사를 통

보한 것이다.

여기에 총학측은 감사준비 미흡과 일할 주체의 부족을 주원인으로 꼽고 특별감사를 통해 그간 사업의 올바른 평가를 받고 이후 학생회 강화에 노력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별감사는 감사특위가 감사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돼

1/4분기 동안의 총학사업에 대한 올바른 점검과 평가를 수행하지 못했다. 감사특위는 총학 특별감사자료를 공개하고 예산·공약사항 등의 중점부문에 대한 감사는 대동제를 마치고 감사자료를 검토해 시행할 방침이다.

특별감사의 주요내용은 조직 감사에서 △부서주제 사업 △

체육특기자 줄여 학과 배정안등 논의

92년 체육특기자 선발인원을 늘리기 위한 ‘체육지도위원회(위원장=민병철총장)’회의가 지난 14일 오후2시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체육특기자 선발인원, 학과배정등을 안건으로 진행했는데 92년 체육특기

자는 구기종목 20명, 개인종목 7명으로 총 27명을 선발할 것을 잠정합의했으며 이는 지난해 44명보다 17명이 줄어든 인원이다.

한편 특기자의 학과배정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부서별 인원·연석회의 문제 △운위와 집행위의 관계 등이며 사업감사에서 △승부의 성과와 오류 평가 및 과제 △긴박한 정세와 학우들의 투쟁의지와 양면제 △학생회 조직의해와 탄압음모의 대처방안 등이다.

또한 학생복지위원회의 감사는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이후 대동제준비사업으로 인한 일정상의 무리로 6월초로 연기하기로 감사특위와 잠정적 합의를 하고 졸업위, 공대는 1학기 불상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올해 8월 8일, 우리 설악에서 세계 청소년들의 힘찬 축제 17회 세계잼버리가 열립니다.



세계는 하나
MANY LANDS, ONE WORLD
DES PAYS, UNE SEULE TERRE

120개국 2만여 청소년들이 모이는 지구촌 보이스카우트들의 야영축제

17회 세계잼버리가 올해 8월8일부터 8월16일까지 우리나라 설악에서 열립니다. 지구촌의 청소년들이 국경, 언어,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자연속에서의 야영과 과감활동을 통해 폭넓은 우정을 나누는 축제 -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이번 17회 세계잼버리는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헝가리, 체코, 소련등 동구권이 대거 참여하여 동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념의 장벽을 넘어 하나되는 의미깊은 행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년들이 이루어 갑니다. 다가올 21세기의 '세계는 하나'

17회 세계잼버리의 테마는 '세계는 하나' - 10대에 세계와 만나 폭넓은 우정을 나누고 자연속에서 젊음의 힘찬 패기를 길러온 지구촌의 보이스카우트들은 21세기의 세계 곳곳에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몫을 하는 주인공으로 자랄 것입니다. 21세기의 하나된 세계를 약속하는 자리 - 17회 세계잼버리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후원

'91 세계잼버리 공인연맹

쌍용 **조흥은행**

'손모아 쥐고 하나되어'

통일노래 한마당·바자회 등 다채 향락행사 지양한 '대동연대의 장'돼야

서울·경주캠퍼스 대동제가 어제(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교내일원에서 각각 열린다. 서울캠퍼스 91목덕대동마당이 '이제 맨발되어 성큼성큼 손모아 쥐고 하나되어'란 주제로 지난 27일 전야제에 이어 내일(30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지난 27일 만해광장에서 열린 전야제 및 통일노래한마당은 각 단과과 15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경연을 벌여 사회학과 노래패 '시나브로'가 통일상을 차지했다.

또한 어제(28일) 오후 1시부터 체육관에서 열린 '동국가족 한마당'은 사학과·공문, 직원 등 4개팀만이 참가해 행사를 치렀으며, 민중운동 평가를 내용으로 한 지선스님 강연회가 오후 3시 학생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오늘(29일)은 오전 10시부터 만해광장에서 애국열사추모 백일장이 열리며, 내일(30일)은 제10회 전국대학 응원대대전이 오후 2시부터 수영장에서, 대동마당 폐막제는 오후 6시부터 대운동장에서 각각 열린다.

어제(28일)부터 진행된 이번 대동마당은 각 과·단과 과수·부상자 지원금 마련을 위한 주점 및 물품판매도 이뤄지는 데 사학과, 불대 등은 주점에서 나온 수익금을 구수자 영지급 마련을 위해 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캠퍼스 인성민주대 동제가 지난 2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31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연대 대동제는 달리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행사를 배제하고 일반학생 경주시민들이 함께 할수있는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있는 것이 특징인데

주요행사를 살펴보면 오늘(29일) 녹야원에서 전통혼례사, 일반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 발표하는 시사발언대, 내일(30일)은 각 학회노래패들의

연합공연, 교수·교직원·학생이 함께 지리하는 바둑대회, 경주시민들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경주시민·학생한마당이 열리며, 31일에는 전통 차전놀이,



◇91목덕대동마당이 동악의 침체된 분위기를 딛고 무장결의를 모으는 여려행사가 기획돼 '단결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사진은 대동마당기간중 전대협 '서조편만 선전모습')

DID방식 전화 9월말 개설

교내 직통전화(DID방식) 설치 및 전자식 전화기 교체 공사가 하계방학중에 실시돼 9월말부터 DID방식에 의한 전화교환시스템이 실행된다.

관계과는 총사업비 7천만원을 들여 교환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교내전화와 통화할 수 있도록 시의통화를 통해하는 DID교환방식 설치공사를 방학

중에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현재 5백회선으로 통화의 한계에 이른 점을 감안, 2백50회선을 늘린 7백50회선 중설설치를 준비하고 타형정부서의 부족한 전화회선 설치를 검토중이다.

특히 이번엔 증설되는 2백50회선은 과학실험까지 직통전화

를 개설할 수 있는 여유분으로 과학실험까지의 직통전화개설을 위한 학교·학생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2학기부터 과학실험·학회까지의 전화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DID방식에 의한 직통전화 설치공사로 현재 기계식 전화기는 전면 전자식 전화기로 교체된다.

모르는게 힘(?)

○...학우 여러분 모르는게 약입니다. 그냥 풀리는 법이로 삼시다"라는 이색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 화제.

지난 23일 신규교수초빙공고 가 나간이후 은방불내에서는 갖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교무과에서는 "교수초빙은 서울에서 다 하잖아"라고 책임을 회피하는가 하면,

○...요즘 조계사에서는 손발이 다들도록 벌이대는 지극한 불자가 있다던데.

그 주인공은 다음아닌 5·18세동행렬 폭력저지이후 많은 불자들의 지탄을 받으며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을 요구당하고 있는 서울시경국 장이라고.

○...한 학기내 내 동문회를 하는 학교, 신입부원을 모집하는 동아리가 너무나 많다 는 비평이던

○...1학기 등록금 환불분을 대동제기간에 사용하고자 주장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해 관심.

어제(28일)부터 치뤄지는 대동제 행사 중 정터에 손님은은 학생들에게는 전교조활동비 마련을 위한 물품판매와 구수·부상자 대학마련을 위한 주점을 놓고 '서로 옳다'는 논쟁이 벌어져 주위를 흐트(?)하게 했다.

이에 아무개 학우는 "대동제가 6월부정의 출정전야제인 만큼 축제속의 단결로 6중에 타격을 주자"며 제언.

○...학우 여러분 모르는게 약입니다. 그냥 풀리는 법이로 삼시다"라는 이색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 화제.

지난 23일 신규교수초빙공고 가 나간이후 은방불내에서는 갖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교무과에서는 "교수초빙은 서울에서 다 하잖아"라고 책임을 회피하는가 하면,

특히 그분(?)은 자기도 절실한 불자라고 말한것까지는 좋았는데, 당시 30분전에 끝나버렸던 故경대군 노래등을 들먹이는 발췌 변명을 끝까지 서슴치 않았더니 그저 어안이 병병할 뿐이라고.

5·18세동행렬에 참가했던 아무개학우 왈 "최후단으로 2천만불자를 분노하게 해놓고서는 두얼굴을 보이는 건

○...한 학기내 내 동문회를 하는 학교, 신입부원을 모집하는 동아리가 너무나 많다 는 비평이던

○...1학기 등록금 환불분을 대동제기간에 사용하고자 주장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해 관심.

어제(28일)부터 치뤄지는 대동제 행사 중 정터에 손님은은 학생들에게는 전교조활동비 마련을 위한 물품판매와 구수·부상자 대학마련을 위한 주점을 놓고 '서로 옳다'는 논쟁이 벌어져 주위를 흐트(?)하게 했다.

이에 아무개 학우는 "대동제가 6월부정의 출정전야제인 만큼 축제속의 단결로 6중에 타격을 주자"며 제언.

○...한 학기내 내 동문회를 하는 학교, 신입부원을 모집하는 동아리가 너무나 많다 는 비평이던

○...1학기 등록금 환불분을 대동제기간에 사용하고자 주장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해 관심.

어제(28일)부터 치뤄지는 대동제 행사 중 정터에 손님은은 학생들에게는 전교조활동비 마련을 위한 물품판매와 구수·부상자 대학마련을 위한 주점을 놓고 '서로 옳다'는 논쟁이 벌어져 주위를 흐트(?)하게 했다.

이에 아무개 학우는 "대동제가 6월부정의 출정전야제인 만큼 축제속의 단결로 6중에 타격을 주자"며 제언.

○...한 학기내 내 동문회를 하는 학교, 신입부원을 모집하는 동아리가 너무나 많다 는 비평이던

부산대서 전대협 출범식 총학 대표단 형식의 참가 검토

제5기 전대협 출범식이 오는 1일 오후 7시 부산대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어제는 31일부터 2일까지 열리는 전대협출범식 일정을 살펴보면 31일 오전 11시 출범식사수대 결의대회에 이어 정오부터 출범식 문예일꾼 전진대회를 마치고 오후 8시부터는 '전대협출범식 시수결의대회 및 전야제'를 갖는다.

출범식이 열리는 1일은 오후 3시 '제2기 학추위 출범식'과 '조국은 하나' 추하공연이, 오후 7시부터 제5기 전대협출범식 이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2일

를 마치고 오후 8시부터는 '전대협출범식 시수결의대회 및 전야제'를 갖는다.

출범식이 열리는 1일은 오후 3시 '제2기 학추위 출범식'과 '조국은 하나' 추하공연이, 오후 7시부터 제5기 전대협출범식 이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2일

오전 11시부터는 6월부정의 승리를 약속하는 '부산시민대회'에 이어 부산시내에서 가두시위가 계획돼 있다.

또한 전대협출범식 기간인 31일부터는 전대협물품판매와 91년부정 사진전, 4·3항쟁공연, 통일연극마당극 등의 문화공연이 부산대내 상설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본교 총학생회는 출범식 시수-참가를 결의했었으나 25일 3차 국민대회중 성균관대 김귀주(불문3)장이 사망, 서울사태가 심각해지자 2인2인으로 구성된 대표단형식의 참가를 검토중이다.

김군영군 워드 '백상' 개발 "한글 그래픽등 획기적 개발"평가

본교 김군영(물리4)군이 기존의 워드프로세서의 기능을 보완하고 그래픽 기능을 대폭 추가한 획기적인 한글 그래픽 워드프로세서를 독자개발해 호평을 받고 있다.

'백상'이라는 이름의 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부전공으로 신학한 김군이 지난 88년말 구입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면서 기능의 부족함을 느껴 3년간의 연구끝에 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워드프로세서에서 자유로운 영상정보의 입력, 편집기

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소프트웨어 관계자에 따르면 이 '백상' 소프트웨어는 다단편집마우스 및 스키퍼지션 기능과 3백50K바이트의 사용자 메모리의 자유자재 지원 기능, 한글 카트리지에 없는 프린터에서도 소프트웨어에 입력된 모든 문자와 그림의 출력 가능, 2백56배 확대기능, 화면의 6분할기 기능등을 갖추고 있는 혁신적인 개발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과대 정기총회 전대협참가인단 발족

제7대 이과대학총회 정기총회가 학내대표의 지원과 역할을 맡고있고 집행부 연설회의의 정착화 및 학내사업에의 집중을 목적으로 지난 27일 오후 3시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당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의 안건으로는 제5기 전대협 출범식에 대한 토론과 참가인단 발족, 학내대표 임기의 1년 상정, 이과대 복지 개선안 수행등이 제안됐다.

자가용 등교 통제 '무색' 스티커복사등 비협조적 자세 여전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의해 지난 13일부터 학생자가용 등교와 외부차량 교내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나 자가용 등교 학생들이 이를 무시,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비협조적 자세가 여전하다.

이해 총무과는 차량통제의 효율화 방안으로 출입허가 스티커를 교수·직원에게 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자가용 등교 학생들이 이를 무시,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비협조적 자세가 여전하다.

내 주차단 심각성은 여전한 실정이다.

학생과의 한 직원은 "차량통제가 강제가 아닌만큼 개인도 덕차원에서 자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용성이 없다"며 "더 강력한 통제방법을 실행해야 할것 같다"고 밝혔다.

또 교통통제아르바이트생 한 학생(식공8)은 "이제는 일단 멈춤도 무시한 채 그냥 통과해 교통통제를 무색하게 한다"며 학교측의 강력한 통제방법을 요청했다.

한편 외부차량·학생자가용 출입이 증가하면서 학내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마련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CPA 1차 12명 합격

지난 24일 재무부에서 발표한 제25회 공인회계사(CPA) 제1차시험에 김중훈(경영3)군 등 12명 합격자가 나왔다.

이날 1차합격자는 전국 총 4백66명으로 본교는 전국 상위권에 들어갔다.

합격자는 △김중훈(경영3) △김중훈(회계2) △문성태(산공4) △윤학섭(이부경영4) △주인환(이부회계4) △신동욱(회계 4) △조성민(대학원 회계학기) △심장섭(이부경영 4) △이정호(이부경영 4) △구자명(이부회계 4) △김순자(이부회계 4) 등 총 12명이다.

변압기 교체 방중에 완료 총 1천kw까지 수용

정전피해 방지를 위한 변압기설치공사가 이번 하계방학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관계과는 지난 2일 2인2시간 동안 정전에 이어 또다시 지난 14일 정전이 발생하자 총사업비 6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이번 공사의 업체선정경과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하전선케이블공사 포함 변압기설치공사는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방학중에 시작, 2학기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4일 하루동안 두 번의 정전사태가 발생해 변압기설치공사가 완료되기까지의 정전피해 대책도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설기사

서울·경주캠퍼스 91학년도 1학기 장학금내역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임시우수장학(2백14명, 1억2천2백57만3천6백50원), 성적우수장학(1천70명, 3억9천2백44만9천4백원), 불교 장학(99명, 4천6백27만6천5백원), 총장및 공로장학(7백19명, 2억1천6백94만3천8백원), 체육특기자장학(1백16명, 1억1천6백72만1천3백50원), 근로·가사 및 복지장학(9백9명, 2억6천5백92만) 등 교내장학이 총 3천8백20명(서울 2천3백27명, 경주 1천4백93명)에게 14억1천3백50만원(서울 9억3천5백64만4천, 경주 4억7천7백95만6천)이

외부장학금 감소 추세 금액 늘고 수혜자는 줄어

지급됐다.

교외장학은 장학법인(1백3명, 7천8백45만5천원), 공공법인 장학(2백35명, 1억1천9백88만7천원), 동문회장학(63명, 1천9백26만7천원)으로 총 4백4명(서울 2백35명, 경주 1백9명)에게 2억2천12만2천원(서울 1억2천9백84만7천, 경주 9천27만5천)이 지급됐다.

91학년도 1학기 장학금내역을 지난해 1학기와 비교 분석해보면 장학생수는 감소한 반면 장학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생수는 임시우수장학생 감소, 신동생장학금지급저지로 인한 통계누락으로 지난해 1학기에 비해 3.3%감소했으며,

장학금액은 등록금인상조치에 따른 장학수혜 인상에 의해 12.1% 증가했다.

그러나 교외장학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교외장학금 확충을 위한 학교측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대표까지 장학대상자에 포함되는 총장및 공로장학금이 총 7백19명에게 지급되고 있어 학생회간부에 대한 장학금비율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등록금협상과정에서 합의된 근로장학생 10%확충은 1학기에 한하여 교통아르바이트생 9명을 근로장학에 포함시켜 1백19명으로 확정했다.

(이별민 기자)

에너지 절약

전기절약 아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전기 절약은 아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전기절약 / 알고 보면 쉬운 일 /
주위의 손쉬운 일부터 한 가지씩 실천하여
지금부터라도 생활화합니다.

아껴쓰는 생활의 지혜

에어콘 낮시간(오후 1시~오후 3시) 사용을 억제합니다.

조명 불필요한 전등 사용을 억제합니다.

냉장고 냉장고 문어닫는 회수를 줄입니다.

세탁기 세탁물은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합니다.

T V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절소고 이개쓰면 고마운 전기 - 안전하게 사용합시다.

민족·민주운동에 기초해 참교육 열망 형상화

1. 전교조의 깃발을 올린지 2년이 지났다. 정권의 이념 공세와 1천5백여명의 교육대학생 속에서도 조급도 동요됨이 없이 전교조의 깃발은 펴리고 있다. 이것은 전교조의 조직보완과 대외체계의 확립, 해고·현장조합원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입증된다. 또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참교육의 내용이 국민대중속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운동의 방향이 정교조 진영 속에서 대중운동의 틀을 확보해내고 민족, 민주운동의 한복판을 울바르게 담보해내는데 있다면, 교육문예운동은 이러한 교육운동의 감각기관으로서 형성적 사주의 무기로 문예대중화운동을 지향한다.

전교조 2주년 특집

교사들의 문학을 통해본 '교육문예' 활동

사람학교의 교장이 어떻게 학교를 사유화하며 학생과 교사를 어떤 방법으로 착취하고 학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상락의 '용달학교엔 누가 다니나' 등의 증언들을 실은 작품집이다. '달린 교문을 열며'는 지방 사립학교 간부급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교사를 감시하여 보고하게 하고 교사에 대한 불신을 강요하는 실제상황에 대한 현장교발이자, 그 사실을 폭로 일러선 '한 교사와 학생들의 감동적인 승리의 기록인 일평어'와 '전교



조는 느끼는 감동의 연장선상에 무엇이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 교육소설집인 '누이를 위하여' (실천 문학사 1987)에 관한 해설에서 김진경이 지적한 한소설은 위의 작품집들이 뛰어넘어야 할 한계를 적절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교육문예'를 통한 한국사회의 전체적 조망에 이르지 못함'이 바로 그것이다.

상 제3종우원론(가)급인가' '장다리꽃 같은 우리 아이들'(최성수 실천문학사 1990) '해적일기'(조영옥 푸른나무 1991) 전교조 결성 이후의 시집들에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은 교사문인들이 교육운동의 발전경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운동에의 직접적 복무라는 체험이 창작의 원천이 되고 있다. 전교조 이전의 교육사가 양심적 자기비판의 목소리로 교육현장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출한게 주조였다면 전교조의 결성과 사수투쟁의 시기에 창작된 시들은 투쟁적 형상화된 성과를 보여준다. 앞에서 열거한 시집들은 개별적 편지는 있으나 고립화되고 개별분산적인 문예적 활동을 극복하고, 문학행위를 통하여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대중의 글레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지배체계의 사슬에 묶여 있던 문예의 힘을 대중의 손에서 비롯된 성과물이다. 이러한 시집들 가운데 조계도의 교육장시집 '침묵의 바다' 파도가 되어' 윤지형의 소설 '선생님'처럼 교육문예의 성과와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선생님'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계도의 시집에서도 88년 여의도 교사집회에서 노조결성과 사수투쟁에 이르기까지 교육운동의 격진한 사건들을 조직적으로 배치하고 교직원노조의 조직적 전망을 이끌어내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 시집에는 대단히 투쟁적이며 새로운 성과를 반성하며 새로운 단계로 비약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전교조 출범후 작품 증가... '교육문예' 범위 설정

교육운동의 직접적 체험이 창작의 원천

조 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여교사의 위조과정과 그 자신 역시 한때는 형사처럼 사랑없이 아이들을 대했던 모습이 반복해서 오버랩되면서 가슴을 찢어 부당한 권력을 이길 수 있는 판단을 세울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의식의 세계를 그린 강혜원의 '그것은 시적인 땀이다' 등의 단편들을 실은 작품집이다.

전교조 결성 이전에 묶인 교육시집은 이광운의 시집(복숭아를 먹고 창작과 비평사 1988)을 비롯해 10여권이 넘는다. 이 무렵 나타난 시집들의 특색은 개별적 교사문인이 교육운동에서 느낀 모순을 폭로, 고발하거나 참교육을 지향하는 양심적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대체로 교육운동의 전망 속에서 형상화된 작품이 나온 것은 전교조 결성 이후로 다음과 같은 시집을 들 수 있다. '몸은 비록 떠나지만'(노종환의 실천문학사 1989) '내 사랑 한반도여 교원노조 물결처럼'(작가회의의 창작 2분과 푸른나무 1989) '교사는 노동자다'(교육문예창작회 푸른나무 1989) '지금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노종환 제3종우원론 1990) '창봉에 실린 나무'(김시천 제3종우원론 1990) '아이들은 내게 한숨이 꽃이 되라 하네'(김종인 실천문학사 1991) '조건의 아이들은 푸르다'(이봉만 녹두 1990) '아침교실에서'(이중현 푸른나무 1990) '침묵의 바다 파도가 되어'(조계도 푸른나무 1990) '술꾼 눈'(정영

'주체적 모습으로 우뚝설때'

'총여학생회' 이대로 좋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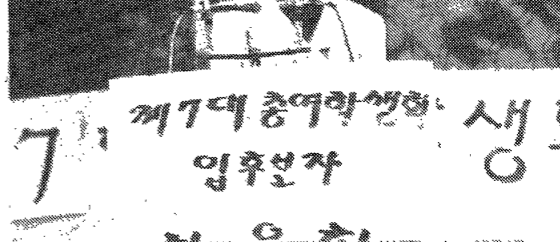
많은 학생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학생회관을 오르내리지만 학생회관 2층에 자리잡고 있는 총여학생회실은 웬지 좀 별명하다. 여학생이라던 여학생회에 대한 한번쯤 관심을 가져볼때도 한 대 동아 여학생들의 대부분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 현재 총여의 사업,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본다.

여성은 오래전부터 "여자가 무슨..." "여자의 임무는 집안일" 등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와 집단속에서 소극적이고 비주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다. 또 남한노동자들은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종하는 식민지 하층 경제계급에 의해 가혹한 수탈을 받아왔다.

여성은 이와같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구조에 의한 이중적착취를 당해온 것이다.

'총여학생회'나 타대의 경우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상황을 여성 스스로 탈피할 수 있도록 의의화, 조직화해 힘쓰며, 여학생들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주체적인 여학생으로 변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기구이다.

그러면, 현재 동아의 여학생회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총여학생회는 집행부 3인과 운영부 3인, 총여학생회장은 여학생이다. 소모임을 찾아다니는 것과 함께 동아의 2천4백 여학생들을 맡고있는 손주더(총여) 기획부장은 "적절 일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고, 단대별 여학생회도 구성돼있지



2백만원 예산비해 활동전무 단대 하부조직 건설 시급

많은 학생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학생회관을 오르내리지만 학생회관 2층에 자리잡고 있는 총여학생회실은 웬지 좀 별명하다. 여학생이라던 여학생회에 대한 한번쯤 관심을 가져볼때도 한 대 동아 여학생들의 대부분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여학생회의 위상과 역할, 현재 총여의 사업,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본다.

총여는 하부조직의 일환으로 교내에 있는 국어교육과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개, 단합대회등 단대에 있는 여학생들의 소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직접여학생들과 만나 연대를 해나가고 있다. 이에 앞서 상반기 사업을 보면 2월에 신임생예비학교 참가, 4월에 여학우 복지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국보법집행과 양성수석방을 위한 장터개회, 구수자들을 위한 인건사업등이 있었다.

그러나, 여학생들을 위해 기획된 행사는 거의 없으며, 나머지 경우도 2백만원에 달하는 한학기 예산에 비해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총여의 '이름'만을 밝히는 정도에 그치고 말아 예산의 명분을 잃은 셈이 된다.

'하부조직'은 총여를 포함한 모든 조직의 기본이 된다. 또 여학생들의 하부조직은 여학생이다. 소모임을 찾아다니는 것과 함께 동아의 2천4백 여학생들을 맡고있는 손주더(총여) 기획부장은 "적절 일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고, 단대별 여학생회도 구성돼있지



조성순 (전교조 교육문예창작회 사무국장)

지피지기

만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 외화되진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그 맥 자체에 혼란이 분기 행진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노정권의 입장에서서는 수세를 공세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최근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초강성 내각'을 구성해 제2의 대국민 전진을 준비하는 노정권이 바로 그 '지피지기'의 대증적 보편성으로 인한 자기

바꾸고자 내각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수세나 공세나 정황판단이 아니라 수세와 공세를 주도하는 '맥'을 찾아야 한다는 양자 사실일 것이다. 그 맥이 바로 '폭력적 노태우 정권'이란 사실은 이제 일부 과정세력(?)의 말만은 아닌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는 이 맥이 의 화될때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그들이 수세에 몰렸지

최현호의 대표적인 사례로, 역좌용의 극지인 것이다. "C"는 파악하면 '彼'를 능치고서는 마치 완벽한 '지피지기'를 하고 있는 양 각 각하고는 그러므로 대국민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호언장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전리는 예외에 대하여는 엄격하고 또한 모든 명제의 대우는 성립한다. 즉 '지피지기'하지 못하면 '백전백패'한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목이 썩어라 외쳤고 펜이 부러져라 말 거왔던 '노태우정권 퇴진'은 이러한 의미에서 필연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끝이 나서 설치지 말라 소리 아니냐. 그 필연성을 알고 우리만큼은 '지피지기'를 하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뜻이다. 'C'와 '彼'의 대립양상에서 하나가 패한다면 대우는 해소된다. 지금의 상황이 누가 더 '지피지기'를 잘하고 있는지 답은 나와있지 않은가. (은)

SAM YANG GROUP

1991 대학생 하계연수 안내

함께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 갑시다

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와 오늘 속에서 미래를 발견하고 가꾸어가는 슬기와 의지 그것만이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1924년 창업이래 인간존중의 기업정신으로 보다 풍요로운 사회건설에 이바지해 온 6천여 三養家族는 식품, 사료, 섬유, 기계, 화학, 의학, 고분자 등 기초산업에서부터 첨단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창조·책임·화합의 사원정신 아래 희망찬 내일을 향한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다 밝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습니다. 학생산업의 현장에서 그동안 언마해 온 학문의 높이를 한 뼘 더 키우십시오.

구분	대학생 하계연수 과정	대학생 여학연수 과정
① 실시기간	1991. 7. 22(월) ~ 7. 27(토) ⇒ 1주간	1991. 7. 1(월) ~ 7. 31(수) ⇒ 5주간
② 모집인원	80명	40명(20명씩 2class 운영)
③ 응모자격	정규대학 3, 4학년으로서 군필 또는 면제자	정규대학 재학중인 남·내대학생(서울가주자)
④ 선발방법	서류심사, 인터뷰(접수시)	서류심사, 기조테스트(접수시)
⑤ 프로그램 내용	삼양그룹 소개, 공장견학, 그룹별 사례연구 및 발표, 비즈니스게임, 교양강좌, 일제강 조형, 훈연, 명승지 관광, 단합대회등	• 영어강좌: 회화중심(중급·고급) 및 외국인강사 초빙예정(00분씩 주 3일 강) • 공장견학, 명승지관광, 단합대회 등
⑥ 응모기간	1991. 7. 8(월) ~ 7. 12(금)	1991. 6. 19(수) ~ 6. 26(수) 토요일은 12:00까지
⑦ 응모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당사 총무부 인사과 (성적증명서 1부 및 방명판 사진 1매 첨부, 본인서 직접 제출요망)	당사 총무부 인사과 (방명판 사진 1매 및 학생증 사본 1매 첨부, 본인서 직접 제출요망)
⑧ 합격자 발표	1991. 7. 16(목) 13:00 분사 로비 (전화문의 가능)	1991. 6. 28(금) 13:00 분사 로비 (전화문의 가능)
⑨ 기타	•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참가담배요금과 고급기념품 지급 예정 • 연수성적 우수자에게 '92, '93년도 대졸채용 전 형상의 혜택 부여 예정	• 우수 수료자 4명 시상 및 참가자 전원에게 고급기념품 지급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총무부 인사과로 전화 연락 요망(☎ 740-7155~7)

삼양사